스크린서 보는 유쾌 코미디

metro

메트로 2015년 1월 9일 금요일 제3132호 www.metroseoul.co.kr

추워서 더 좋은 '겨울축제'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극장에서 관객들이 '국제시장'의 표를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아빠·엄마가…" 젊은층 울린 '국제시장'

아버지 세대 이야기 신드롬 · 1000만 돌파 눈앞
관객 20~30대가 절반 넘어·· 논란일자 더 관심

새해 초부터 한 편의 영화가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달 17일 개봉한 '국제시장'이다. 개봉 21일째인 지난 6일 800만 관객을 불러모았다. 7일까지의 누적 관객수는 836만2697명(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집계 기준)이다. 새해 첫 1000만 영화 탄생이 기대된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 중장년층 공감대 형성

'국제시장'은 1950년 한국전쟁을 피해 부산으로 피란 온 덕수(황정민)의 다섯 식구의 이야기를 그린다. 1960년대 파독 광부, 1970년대 베트남전, 1980년대 이산가족 찾기 등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이 영화의 주요 에피소드로 등장한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에서도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이 시대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다.

영화는 개봉 전부터 흥행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다. 황정민, 김윤진, 오달수 등 스타 배우들의 캐스팅은 제작 단계부터 화제를 모으기에 충분했다. 무엇보다도 '해운대'로 1000만 관객을 모은 '흥행의 귀재' 윤제균 감독의 신작이라는 점에서 흥행 전망이 밝았다.

예상대로 '국제시장'은 관객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중장년층 관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영화 속 덕수처럼 한국전쟁 당시 부산에서 태어나 자랐다는 한 60대 관객은 "영화를 보면서 실제 내 이야기 같아서 많이 울었다"는 감상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중장년층 관객만 '국제시장'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멀티플렉스 극장 CGV의 분석에 따르면 '국제시장'의 티켓을 구매하는 관객층은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봉일부터 지난 4일까지 CJ ONE 포인트 적립 회원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국제시장'을 본 관객 중 20대는 30.5%의 비율을 차지했다. 30대와 40대도 각각 27.3%와 28.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폭넓은 세대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아버지 이야기로 봐주길"

'국제시장'은 흥행과는 별개로 여러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역사를 다루고 있음에도 정치적인 태도를 배제했다는 점이 논란의 배경이다. 독재 시대에 대한 미화라는 지적도 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감독은 정면승부 대신에 (우리 세대라면 자라면서 지겹게 들었을) 이야기를 열렬한 개그와 싸구려 신파로 재포장해 내놓는 길을 택한 듯"이라고 평가했다. 허지웅 영화평론가는 영화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반응에 대해 "어른 세대가 공동의 반성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영화 속 덕수 부부가 부부싸움 도중 애국가가 나오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장면을 언급하며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이기에 운제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제시장이) 보수의 영화라는 식의 정치적 해석을 이해할 수 없다. 국기에 대한 경례 같은 장면은 그때의 시대상으로 영화가 사용한 에피소드일 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윤제균 감독은 "부모님 세대를 미화할 생각은 전혀 없다. 지금의 젊은 세대가 부모님 세대의 고생보다 덜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며 "정치적인 시선보다 가족영화의 시선으로 영화를 봐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대 간의 갈등을 일으키려고 만든 영화가 아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출발한 영화"라고 덧붙였다.

이런 논란은 오히려 영화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더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논란 속에서도 '국제시장'은 관객 동원에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시장'의 열기는 대작들이 쏟아지는 2월 설 연휴까지 담보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분증 놓고 도주한 프랑스 테러범들

1명 자수 — 2명 오리무중

7일(현지시간) 발생한 프랑스 주간지 테러 사건의 용의자 세 명 중 한 명이 경찰에 자수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주간지 샤를리 엡도 사무실에 침입해 총기를 난사한 용의자는 사이드 쿠아치(34), 셰리프 쿠아치(32), 하미드 무라드(18) 등 프랑스 국적자 3명이다. 이 가운데 무라드는 경찰에 자수해 수감된 상태다.

한 소식통은 "무라드가 자신의 이름이 소셜미디어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경찰에 자수했다"고 밝혔다.

현지 경찰은 쿠아치 형제의 사진을 배포하고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쿠아치 형제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면서 이들이 총기로 무장하고 있는 만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쿠아치 형제는 파리 출신이며 경찰에 자수한 무라드는 북부 랭스 출신이다. 당국은 용의자 중 한 명이 도주 차량에 놓고 간 신분증으로 신원을 파악했다.

용의자 중 한 명인 셰리프 쿠아치는 2008년 이라크 내 반군에 무장대원을 보내는 일을 돕다가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당시 법정에서 이라크 수감자들이 아부 그라이브 미군 교도소에서 모욕적인 고문을 당하는 영상을 보고 분노해 테러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이번 테러는 주간지 샤를리 엡도가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를 풍자한 만평을 실은 것이 발단이 됐다. 편집장을 비롯한 직원 10명과 경찰 등 12명이 숨졌다. <관련기사 14면>

/조선미기자

이 주의 개봉작

워킹걸
장르 코미디
감독 정범식
출연 조여정, 클라라, 김태우

남편과의 섹스보다 업무 성과가 좋을 때 쾌감을 느끼는 워커홀릭 보희는 승진을 앞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서 치명적인 실수로 해고당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으로부터 이별 통보까지 받은 보희는 우연히 섹스숍 오너 난희를 만나게 된다. 완벽할 것 같지만 정작 실제는 허당인 그녀들. 두 워킹걸의 은밀한 동업이 시작된다.

설해
장르 멜로
감독 김정권
출연 이청진, 이영아

어릴 적 어버린 엄마 아픔을 간직한 조향사 선미. 그리고 사랑하는 여동생을 먼저 떠나보낸 실업팀 수영선수 만년후보생 상우. 어느 날 상우는 우연히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선미를 구해준 것을 계기로 선미와 운명처럼 가까워진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지만 어느 날부턴가 선미의 몸에서 이상신호가 감지된다.

타임 패러독스
장르 SF
감독 마이클 스피어리그, 피터 스피어리그
출연 에단 호크, 노아 테일러

뉴욕을 초토화시킨 폭파 사건으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다. 용의자 최종 폭파범을 잡기 위해 범죄 예방 본부는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템포럴 요원을 투입한다. 여 ... 시간을 바탕으로 범인을 잡기 위한 추적이 펼쳐진다. 폭파범과 요원, 그리고 의문의 남자 사이에서 상상도 못한 진실이 모습을 나타낸다.

나의 사적인 여자친구
장르 서스펜스
감독 프랑소와 오종
출연 로망 뒤리스, 아나이스 드무스티에

클레어는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공유하며 자랐던 절친 로라가 죽은 뒤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 로라의 아이와 그녀의 남편을 돌보며 슬픔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 그러던 어느 날 클레어는 낯선 여자에게서 죽은 친구를 느끼게 된다.

버텨야 하는 삶에 대해

2차 세계대전 당시 실화 바탕 감동 드라마

이 주의 선택
손정호 기자

■언브로큰

요즘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이 오래 남는 것이 아니라 오래 남는 사람이 능력 있는 것이라고들 말한다.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2015년의 한국 사회에서 이 말은 더욱 뼈저리게 다가온다. 그런 2015년의 시작과 함께 '언브로큰'이 개봉하는 것은 단순한 우연만은 아닐 것이다. 이 힘든 세상을 견뎌낼 수 있는 '버텨야 하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화이기 때문이다.

'언브로큰'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실존했던 인물인 루이 잠페리니의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이탈리아 이민자 출신인 루이는 뛰어난 달리기 실력으로 미국의 미래를 짊어질 육상 선수로 주목 받았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그는 폭격을 당해 망망대해에서 47일 동안을 표류했고 일본군의 전쟁 포로가 되는 등 고난을 겪어야 했다. 영화는 고난 속에서도 삶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루이의 내면을 잔잔히 담고 있다.

"순간의 고통을 견디면 영원한 영광을 즐길 수 있어." 독일 베를린 올림픽 출전을 위해 고향을 떠나는 루이에게 형은 말한다. '언브로큰'의 주제는 이 한 마디 말에 함축돼 있다. 루이의 삶은 바로 버티고 기다리는 '인내의 삶' 그 자체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 위에서 전우들과 함께 표류하게 된 순간에도 루이는 어떻게든 삶을 이어가기 위해 상어까지 잡아먹는 등 안간힘을 다한다. 도무지 견뎌내기 힘든 환경 속에서도 삶의 의지를 꺾지 않는 루이의 강인함은 '언브로큰'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수동력이다.

믿기지 않는 47일 동안의 바다 위 표류기가 영화의 전반부를 채우고 있다면 후반부는 일본군의 포로가 돼 겪는 고난에 초점을 맞춘다. 도쿄 올림픽에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걸기를 바랐던 루이는 그러나 자신의 기대와 달리 처참한 포로 신세로 도쿄에 발을 내딛는다. 올림픽 출전 선수라는 유명세를 이용해 일본에 협조하라는 유혹을 받지만 그럼에도 루이는 자신의 의지를 저버리지 않는다. 루이에게 묘한 애증을 느끼는 일본군 장교 와타나베(미야비)의 무자비한 멈범마저도 끝내 견뎌내고 일어서는 루이의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이다.

제목처럼 단 한 순간도 부러지지 않는 루이의 이 강직한 삶을 보고 있노라면 이 힘든 세상도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을 갖게 된다. 물론 그가 처했던 현실과 우리의 현실을 일대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말이다. 루이와 달리 우리는 지금의 부조리한 시대를 그저 버텨야만 하는 건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럼에도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는 2015년의 출발점에서 '언브로큰'을 만나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15세 이상 관람가.

새해 스크린에서 만나는 유쾌한 코미디

HOT SCREEN

말하는 곰 '패딩턴'·음식 소재 '아메리칸 셰프'

2015년 새해를 맞이해 스크린에서는 유쾌함을 선사하는 코미디 영화들이 개봉된다. '해리포터' 제작진이 참여한 가족 영화 '패딩턴'과 '아이언맨'의 존 파브로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아메리칸 셰프'다.

7일 개봉한 '패딩턴'은 난생 처음 인간들 세상으로 나온 말하는 곰 패딩턴의 좌충우돌 모험담을 그린 작품이다.

영화의 주인공인 곰 패딩턴은 1958년 영국의 문학작가 마이클 본드가 발표한 '내 이름은 패딩턴'을 통해 처음 소개된 캐릭터다. 패딩턴 베어 시리즈는 지금까지 3500만부 이상이 판매됐으며 40개국 언어로 번역돼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프로듀서 데이빗 헤이먼은 사랑스러운 캐릭터는 물론 풍성한 스토리와 대중성을 갖췄다는 점에서 '패딩턴'을 영화화하기로 결정했다. 니콜 키드먼, 휴 보네빌, 샐리 호킨스 등 명배우들과 함께 '해리포터' 시리즈의 출연진들도 대거 참여해 영화에 풍성함을 더했다.

같은 날 개봉한 '아메리칸 셰프'는 '아이언맨'으로 잘 알려진 존 파브로 감독이 연출과 주연을 도맡은 작품이다. 일류 레스토랑 셰프였던 칼 캐스퍼가 해고를 당한 뒤 길거리 샌드위치 트럭으로 재기하는 과정을 유머러스하게 그렸다.

이번 영화에는 존 파브로 감독과 함께 '아이언맨'에서 작업했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 스칼렛 요한슨이 출연해 눈길을 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극중 칼 캐스퍼에게 푸드 트럭을 빌려주는 사업가로 변신해 특유의 위트 있는 연기를 펼쳤다. 스칼렛 요한슨은 레스토랑 지배인 몰리 역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할리우드 연기파 배우 더스틴 호프만도 일류 레스토랑 주인으로 분해 깜짝 재미를 더했다. 영화는 식욕을 자극하는 음식의 향연으로 눈과 입이 모두 만족스러운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정호기자

무대와 공연으로 다시 느끼는 '원스'의 감동

주인공 스웰시즌 10~11일 내한 공연 지난달 3월 초연 동명 뮤지컬도 성황

지난 2006년 첫 선을 보인 영화 '원스'는 음악이 지닌 힘으로 전 세계 관객들 마음을 사로잡았다. 길거리에서 만난 두 남녀가 음악으로 한 순간의 교감을 나눈다는 단순한 이야기는 아름다운 음악 선율의 힘으로 많은 이들의 가슴에 감동을 선사했다.

이번 주말에는 '원스'의 감동을 다시 느낄 수 있는 무대가 서울에서 펼쳐진다. '원스'의 주인공인 글렌 한사드와 마르게타 이글로바의 2인조 프로젝트 그룹인 스웰시즌은 오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내한공연을 가진다.

글렌 한사드와 마르게타 이글로바는 영화 출연 전부터 스웰시즌으로 함께 활동해왔다. 2006년 영화 '원스'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자 글렌 한사드의 밴드 더 프레임스까지 참여시켜 활동하고 있다.

두 사람은 영화 출연 이후 실제 연인으로 발전해 화제가 됐다. 그러나 2009년 둘은 이별을 맞이하게 됐고 자신들의 이별 내용을 담은 앨범 '스트릿트 조이'를 발표해 평단의 극찬을 받기도 했다.

스웰시즌은 그 동안 세 차례 한국을 찾아 내한공연을 펼쳤다. 특히 2009년 1월에 열린 공연은 회당 2784명의 관객을 끌어모아 그해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공연 중 1회 평균 유료관객을 가장 많이 동원했다.

이번 공연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내에서만 열리는 공연이다. 공연을 주최하는 프라이빗커브는 '폴링 슬로울리' 등 히트곡들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화를 바탕으로 한 동명의 뮤지컬도 성황리에 공연 중이다. 지난 3일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에서 초연을 시작한 '원스'는 윤도현, 이창희, 전미도, 박지연 등의 캐스팅으로 영화의 감동을 무대 위에서 재현하고 있다.

특히 극적인 줄거리와 화려한 군무가 주를 이루는 기존 뮤지컬과 달리 음악에 보다 집중한 뮤지컬로 사랑 받고 있다. 한국을 찾는 스웰시즌은 내한 기간 중 뮤지컬 '원스'를 관람하고 배우와 관동과도 만날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시간이 흘러도 잃고 싶지 않은 청춘

이소영의 영화 에세이

길을 걷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그림자에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청춘이 보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도 그들에게도 잃고 싶지 않은 청춘이 있겠죠.

우연히 만난 이 작품은 한참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가 한 편 있죠.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인데요. 이 그림과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2015년이 시작되었네요. 제 나이도 이제 33.1세를 지나가고 있지만 나이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올해는 더욱 더 마음이 청춘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나이는 몇 살인가요?

/이소영 소통하는 그림연구소 대표

청춘

–사무엘 울만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장밋빛 볼 붉은 입술 튼튼한 무릎이 아니라

씩씩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오르는 정열을 말한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선호하는 마음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하는 것.

때로는 20세 청년보다 60세 노인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상을 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을 늘려 가지만

열정을 잃으면 영혼이 주름지는 것

Nicolo MARFAISEN의 L'orologio(시계) 2011

고뇌, 공포, 실망에 의해서 기력은 땅에 떨어지고

정신은 먼지가 되어버린다

일흔이든 열여섯 살이든 인간의 가슴속에는

경이로움에 끌리는 마음

어린아이처럼 미지에 대한 탐구심

인생에 대한 흥미와 환희가 있다

우리 모두의 가슴속엔 마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체국이 있다

다른 사람들과 하느님으로부터

아름다움·희망·기쁨·용기와 힘의 영감을 받는 한 당신은 젊다

업그레이드돼 돌아오는 '아가사'

앙코르 공연 내달 11일부터 무대 올라

추리소설가 아가사 크리스티의 실종사건을 재구성한 뮤지컬 '아가사'가 새로 업그레이드돼 돌아온다.

뮤지컬 '아가사'는 지난해 초 중국대 이해랑 예술극장에서 첫 선을 보인 뒤 탄탄한 구성과 매력적인 스토리로 언론과 관객의 호평 속에 막을 내렸다.

이번 앙코르 공연은 김수로프로젝트 9탄 연극 '데스트랩'의 흥행 신화를 이룬 김지호 연출과 김수로 프로듀서가 다시 한 번 의기투합해 선보인다.

김수로 프로듀서는 지난달 22일 진행된 상견례 자리에서 "80석에서 시작해 700석까지 왔다. 모든 게 처음이지만 대극장 역사를 새로 쓴다는 각오로 노력하겠다. 그만큼 자신 있는 작품"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뮤지컬 '아가사'는 1926년 12월 당대 최고 여류 추리소설 작가인 아가사 크리스티가 실제로 11일 동안 실종된 추리소설 같은 사건을 재구성한 미스터리 작품이다. 묵직한 무대와 웅장한 음악에 '댄싱9'의 댄싱마스터 우현영 단장의 안무가 한새력 기존보다 3배 커진 스케일의 화려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주인공인 아가사 크리스티 역은 배우 최정원과 이혜경이 맡았다. 실종사건 배후에 있는 미스터리한 인물이자 아가사를 유혹에 빠뜨리는 치명적 매력의 소유자인 로이 역에는 강필석, 김재범, 윤형렬이 캐스팅됐다.

또한 아가사의 이웃이자 추리소설가를 꿈꾸는 소년에서 27년 뒤 표절시비에 휩싸여 재기불능의 죄인이 된 작가이자 극의 해설자 레이몬드 역은 박한근, 정원영, 그리고 슈퍼주니어 려욱이 맡았다. '아가사'는 다음달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다.

/김보유기자

주말엔 본·방·사·수

금요드라마 로맨스 전쟁

파격 편성 '스파이', '미생' 후속 '하트 투 하트', 뮤직드라마 '칠전팔기'

금요드라마 전쟁이 시작된다. KBS2 '스파이', tvN '하트 투 하트', 엠넷 '칠전팔기 구해라'가 9일부터 매주 금요일 밤을 책임진다.

'하트 투 하트'는 '미생' 후속작으로 전작의 열풍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작품은 주목 받아야 사는 정신과 의사 고이석(천정명)과 주목 받으면 죽는 대인기피성 안면홍조를 지닌 여자 차홍도(최강희)의 로맨스 드라마다. 최강희가 분한 차홍도는 헬멧을 쓰지 않으면 외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병이 심각한 인물이다. 큰 인기를 얻은 '커피프린스 1호점' 이윤정 감독의 tvN 데뷔작이라는 면이 주목 받는다. 그룹 원더걸스 전 멤버 소희가 배우 '안소희'로 처음 시청자와 만나는 작품이라는 점도 '하트 투 하트'의 관전포인트다. 오후 8시30분 방송된다.

'칠전팔기 구해라'는 케이블 음악 채널 엠넷이 개국 20주년을 맞아 제작한 12부작 뮤직드라마다. 작품은 2010년 방송된 '슈퍼스타K2'를 배경으로 한다. 구해라(민효린) 쌍둥이 형제 강세종(곽시양) 강세찬(진영)이 주인공이다. 헨리 박광선 유성은은 음악을 향한 열정을 가진 청춘들로 등장한다. '슈퍼스타K2' 톱11 심사위원 윤종신 백지영 박진영 등은 카메오로 출연, 보는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김용범 감독은 지난 6일 제작발표회에서 "'칠전팔기 구해라'는 인물의 음악적 성장보다 실패한 사람들의 재기를 다룬다"며 "추억의 노래로 포괄적인 연령대가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기존 음악드라마와의 차별점을 설명했다. 오후 11시부터 90분 방송된다.

KBS는 '하트 투 하트', '칠전팔기 구해라'를 아우르는 시간대에 '스파이'를 편성했다. '스파이'는 이스라엘 드라마 '마이스'를 원작으로 한다. 전직 간첩인 엄마(배종옥)와 국정원 요원 아들(김재중)의 이야기를 그린 가족+첩보 스릴러다. 사랑하는 가족 사이에서 서로 속고 속이는 내용을 담는다. 오후 9시30분~오후 11시10분 50분 방송물을 2부 연속 방영한다. KBS가 신년을 맞이해 선보이는 파격적인 콘텐츠이기도 하다.

박현석 감독은 "KBS 편성 중 가장 약했던 시간대에 강한 콘텐츠를 넣자고 합의됐다"며 "장르는 감성 느와르, 내용은 정통 가족극이다. 다양한 연령대의 시청자가 즐기는 드라마를 만들어 보자는 목표로 기획했다. 가장 우선시한 건 재미"라고 작품을 소개했다.

/전효진 기자 jeonhj@metroseoul.co.kr

KBS2 금요드라마 '스파이' 김재중 배종옥 · tvN 금토드라마 '하트 투 하트' 최강희 천정명 · 엠넷 뮤직드라마 '칠전팔기 구해라'

알고 보는 TV

씨스타 사생활 공개된다

엑소-비스트-에이핑크 이어 '쇼타임' 주인공
"팬층 두터운 아이돌…지속 성장 위해 선택"

걸그룹 씨스타가 에이핑크의 바통을 이어 받아 사생활을 낱낱이 공개한다.

케이블채널 MBC에브리원은 그동안 아이돌 리얼리티 프로그램 '쇼타임'을 통해 그룹 엑소(EXO)를 시작으로 비스트, 에이핑크까지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아이돌의 민낯을 그대로 공개했다. 시즌4의 주인공은 씨스타다.

씨스타 멤버(효린 보라 소유 다솜) 4명과 프로그램 연출을 맡은 윤미진 PD는 8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IFC몰에서 '쇼타임' 시즌4 첫 방송에 앞서 출사표를 던졌다.

에이핑크 편을 끝으로 3개월 동안 휴지기를 보낸터라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됐던 윤 PD는 "어떤 동력을 가지고 갈까 고민이 많았다. 시즌4의 방향은 기존 10대 위주의 시청층을 넓혀보자는 것"이라며 "그래서 씨스타를 선택했다. 씨스타는 현존 아이돌 중 가장 넓은 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룹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시리즈 중 가장 시원시원한 방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를 높였다.

이는 씨스타의 대중성에 기반한 다양한 시청층 확보가 '쇼타임' 시즌4가 지닌 차별화 포인트라는 해석이다. 씨스타 멤버들의 솔직한 성격이 이를 뒷받침 한다.

윤PD의 기대대로 이날 씨스타 멤버들은 프로그램에 임하는 자세로 일제히 '솔직함'을 내세웠다.

소유는 "이미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흑설탕줄 분장을 했을 때 (걸그룹 이미지의) 모든 것을 내려놨다. 평상시 모습 그대로를 보여드릴 것이다. 큰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라는 "이전 출연진들의 방송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다. 작가에게 물어보니 우리는 너무 솔직하다고 하더라. 그냥 평소 하던대로 했는데 꾸밈없는 모습에 그랬던 것 같다"고 전했다.

다솜은 "저희의 활기찬 건강 라이프를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모습 그대로"를 강조한 멤버들이지만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에는 다소 부담감이 있는 눈치였다.

효린은 "집이 최초로 공개된다. 멤버들 집이 다 공개되는데 비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저는 집을 잘 꾸며놓고 사는 편인데 '효린이 돈을 많이 벌어서 저런 집에 사는구나'라는 말도 들을 수 있겠다 싶어 걱정도 된다"고 조심스레 우려를 표했다.

보라는 "방송에는 전체 촬영 본 중 일부만 나가는데 한 면으로만 바라봐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씨스타는 한차례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경험한 적이 있다. 지난해 초 씨스타의 미드나잇 in 홍콩'으로 총 4부작 촬영을 진행했다. 당시 막내 다솜은 제외됐다. 보라는 "홍콩 편에서는 하루 이틀 안에 많은 것을 보여드려야 해서 체력적으로 힘든 촬영이었다. 이번 촬영은 여유롭게 다양한 촬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기대를 드러냈고 다솜은 "홍콩은 함께하지 못했다. 좋은 기회가 내게도 왔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보라는 "20대 여성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씨스타의 '쇼타임'이 갖는 차별점을 강조했다. 8일 오후 6시를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씨스타의 백일이 차례로 벗겨진다.

/유슬기기자 [illegible]

'존윅'으로 돌아온 액션 뱀파이어

할리우드 배우 키아누 리브스

할리우드 배우 키아누 리브스가 한국 땅을 밟았다. 오는 21일 개봉을 앞둔 액션 영화 '존윅'(감독 채드 스타헬스키·데이빗 레이치)의 홍보를 위해서다. 그는 7일 오전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2박3일 내한 일정에 돌입했다.

지난 2008년 개봉한 '스트리트 킹' 이후 약 7년 만에 다시 한국 팬을 만난 키아누 리브스는 예정된 시간보다 10분 늦게 도착했다. 그는 "늦어서 죄송하다"며 바로 이어 한국말로 "미안합니다"고 사과를 건넸다. 이어 "'해피 뉴이어(Happy New Year)'를 한국어로 어떻게 말하느냐"며 즉석에서 배워 어눌한 말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키아누 리브스의 재치 넘치는 사과로 기자회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시작됐다.

◆ 존윅과 닮은 키아누

영화에서 키아누 리브스는 주인공 존윅(John Wick)을 연기했다. 존윅은 업계에서 알아주던 냉혹한 킬러였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범죄의 세계와 인연을 끊고 새 인생을 사는 인물이다. 하지만 그의 행복은 짧았다. 아내는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존윅에겐 아내가 선물로 남기고 간 강아지만 남았다. 강아지는 그에게 소중한 존재였지만 괴한들로 인해 그마저도 잃게 된다. 분노에 휩싸인 그는 복수를 위해 괴한들을 찾아 나서며 영화는 시작된다.

존윅은 키아누 리브스와 닮아있다. 실제로 그는 친구와 연인을 사고로 잃은 후 촬영 기간 외에는 거리를 전전하며 노숙 생활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키아누 리브스는 존윅 캐릭터에 애착을 보이며 시나리오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윅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소중한 것을 빼앗긴 후 고통스러워한다. 그리고 그만의 방식으로 고통을 타개하는데 그 부분이 공감됐다. 난 원래 액션을 무척 좋아한다. 관객으로서도 연기자로서도 액션 영화를 즐긴다. 특히 액션에 스토리와 좋은 캐릭터까지 있다면 최고다. '존윅'이 바로 그런 영화다. 존윅이 겪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고 의지가 굳은 그의 성격도 마음에 들었다. 영화에 등장하는 현실세계와 비현실적인 지하세계의 대비도 좋았는데 관객들 역시 마음에 들어 하리라 믿는다."

존윅이 결혼 생활동안 킬러 생활을 하지 않은 것처럼 키아누 리브스 역시 한동안 액션 영화를 떠나 있었다. 키아누 리브스는 '매트릭스'와 '콘스탄틴' 등의 작품에서 액션 영웅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존윅'은 복수를 위해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안티히어로(반영웅 캐릭터)'에 가깝다. 그는 히어로와 안티히어로 중 어떤 캐릭터에 더 매력을 느낄까.

캐릭터 마음에 들어 출연 결심 쉽게
녹슬지 않은 액션… '매트릭스' 덕분

"사실 둘 다 좋다. 존윅을 안티히어로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스스로에게는 영웅이다. 복수로 시작하지만 아내의 죽음에 슬퍼하고 내면의 평화와 생존을 위해 싸우는 부분은 영웅적으로 느껴진다."

◆ 50대에 젊어진 액션 우미 스타

스피드'의 키아누 리브스는 어느덧 데뷔 30년차 배우가 됐다. 5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액션 스타로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존윅'을 비롯해 액션 영화에 출연할 땐 많은 훈련을 받는다. 훌륭한 선생님들 덕분에 좋은 액션신이 나온다. 특히 '존윅'을 위해 유도, 주짓수, 건푸(Gun-fu, 쿵푸에서 따온 총이나 무기를 들고 하는 액션 영화 무술) 등을 배웠다. 또 자동차 액션신이 많이 나오는데, 자동차가 360도 회전하는 것이나 창문 너머로 총을 쏘는 것 등의 장면을 즐기며 촬영했다. 물론 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젊었을 때처럼 높아 또 빨리 뛰는 건 어렵다. 젊었을 땐 지금보다 더 높이 뛸 수 있었다(웃음)."

그는 나이가 들어 액션신이 예전 같지 않다고 엄살을 부렸지만 '존윅'은 화려하고 통쾌한 액션 신으로 가득 차 있다.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젊었을 때 보다) 효율적으로 액션신을 소화할 수 있다. 새로운 동작을 배울 때 좀 더 지혜롭게 접근 할 수 있다. 액션은 단독 연기가 아니라 팀을 이뤄 안무를 맞추듯 서로 협력해야 할 수 있다. 좋은 팀을 만난 덕분에 훌륭한 액션신이 나왔다. '존윅'은 다른 액션영화보다 롱테이크가 많다. 만약 '매트릭스'의 경험이 없었다면 '존윅'도 어려웠을 것이다."

그에겐 세월이 흔적 마저 비껴간 듯 했다. 국내 팬 사이에서 그의 별명은 '뱀파이어'다. 나이에 비해 동안이기 때문이다. 이 별명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여기서 확실히 말하자면 나는 뱀파이어가 아니다. 부모님과 조상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 같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올해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할리우드 스타의 인터뷰는 유쾌하게 마무리됐다.

/김유진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아시안컵, 손흥민·이청용으로 시동 건다

10일 오만과 예선 1차전… 55년 만의 정상 노려

주말의 핫스팟

한국 축구 대표팀이 55년 만의 아시아 정상 등극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10일 오후 2시(한국시간) 호주 캔버라 스타디움에서 오만과 2015 호주 아시안컵 A조 1차전을 펼친다.

한국은 오만, 쿠웨이트, 호주와 함께 A조에 편성됐다. 오만을 반드시 꺾어야 8강 출전권이 주어지는 조 1, 2위를 향한 길이 순탄해진다.

슈틸리케 감독은 손흥민(레버쿠젠)과 이청용(볼턴)을 내세워 성공적인 첫 단추를 끼우겠다는 전략이다. 이들 테크니션은 좌우 날개 공격수로 포진해 슈틸리케호의 제로톱 전술에서 전후좌우를 누비는 핵심병기로 활약할 예정이다.

슈틸리케호의 4-2-3-1 전술 대형의 최전방에는 상대를 교란하면서 한방까지 노릴 가짜 공격수 조영철(카타르SC)이 포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풍부한 경험과 많은 활동량을 자랑하는 이근호(엘 자이시), 세내기 타깃맨 이정협(상주 상무)도 최전방에 설 가능성이 있다.

지난 8일 오후 호주 캔버라 디킨 스타디움에서 훈련 중인 한국 축구 대표팀. /연합뉴스

조영철, 손흥민, 이청용 삼각편대의 뒤를 받칠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는 남태희(레퀴야)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 구자철(마인츠)이 컨디션 저하로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격과 수비를 연결할 중원 미드필더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맹활약 중인 기성용(스완지시티)이 포진한다. 기성용은 구자철 대신 주장 완장을 차 승리를 향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중원의 주도권을 지킬 수비형 미드필더로는 한국영(카타르SC)이 거론된다. 좌우 풀백으로는 박주호(마인츠)와 김창수(가시와 레이솔)가 주목된다. 멀티플레이어 박주호는 김진수(호펜하임)에게 왼쪽 풀백을 내주고 한국영 대신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약할 수 있다.

다른 오른쪽 풀백인 차두리(FC서울)는 경미한 무릎 부상으로 재활에 힘을 쏟리고 있다. 최근 훈련은 무난히 소화했다.

중앙 수비수로는 김주영(상하이 둥야), 장현수(광저우 푸리)가 주목을 받고 있다. 다른 센터백으로는 곽태휘(알힐랄), 김영권(광저우 헝다)이 있다. 골키퍼는 김진현(세레소 오사카)이나 김승규(울산 현대)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슈틸리케 감독은 "볼을 많이 소유하고 적극적으로 공세에 나서 보는 이들을 즐겁게 하는 축구를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국은 오만과 지금까지 4차례 대결에서 3승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다만 마지막 대결이 2004년 2월로 무려 11년 전인 만큼 상대 전적에 큰 의미를 두기는 힘들다. 한국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69위로 오만(93위)보다 24계단 높다.

/송병형기자 solaris@metroseoul.co.kr

제라드, 美 LA갤럭시 이적 확정

리버풀 주장 7월 합류 "새로운 시작에 흥미"

잉글랜드 프로축구 리버풀의 상징이자 '캡틴'인 스티븐 제라드(35·사진)가 미국 프로축구(MLS) LA갤럭시로 이적을 확정했다.

LA갤럭시는 8일(한국시간) 제라드와의 계약이 성사됐다며 그가 올시즌 프리미어리그를 마치고 7월 MLS 이적시장이 열리면 선수단에 합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MLS는 샐러리캡(연봉 총액 상한제) 제도를 두고 있지만 제라드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정 선수'로 영입됐다. 각 구단은 3명의 지정 선수를 둘 수 있다.

제라드는 1987년 리버풀 유소년팀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지난 1998년 1군 무대에 데뷔한 이후 줄곧 리버풀 한팀에서만 활약한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다.

그는 리버풀에서 뛰는 동안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2회, 리그컵 3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회, UEFA컵 1회 등 여러 차례 우승을 맛보며 팀의 전성기를 함께했다.

제라드는 구단을 통해 "미국에서 LA갤럭시와 함께 선수 생활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게 돼 흥미진진하다"며 "팀의 우승을 위해 경쟁하고 LA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학철기자

프로농구 전적 (8일)

삼성	12	22	17	11	62
신한은행	19	21	11	10	61

프로배구 전적 (8일)

OK저축은행	3	1	LIG손해보험

프로농구 올스타전 '신·구 대결'

시니어 매직 vs 주니어 드림 10·11일 잠실서 열려

주말의 핫스팟

2014-2015 KCC 프로농구 올스타전이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펼쳐진다.

메인 경기는 11일 서울시 송파구 잠실체육관에서 치러진다. 연고 지역에 따라 5개 구단씩 '매직'과 '드림'으로 나누던 기존 방식은 변화를 예고했다. 올해에는 1987년생, 한국 나이로 29세 이상 선수들의 '시니어 매직팀'과 28세 이하 선수들이 뭉친 '주니어 드림팀'이 격돌한다.

농구 팬들이 직접 뽑은 시니어 매직 베스트 5에는 양동근(모비스), 조성민(KT), 문태종(LG), 양희종·오세근(이상 KGC인삼공사) 등이 모였다. 이에 맞서는 주니어 드림팀은 김선형(SK)·이재도(KT), 이승현·트로이 길렌워터(이상 오리온스), 김준일(삼성) 등으로 구성됐다.

경험 면에서야 시니어 매직이 앞서겠지만 올스타전인 만큼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는 쪽보다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하는 선수가 최우수선수(MVP)의 영광을 차지하게 돼 누구에게 돌아갈지는 알 수 없다.

지난 시즌 MVP를 차지한 김선형은 2년 연속 MVP에 도전한다. 2007-2008시즌 MVP 출신으로 13시즌 연속 올스타전에 나가는 김주성(동부)도 두 번째 '별 중의 별'로 뽑히는 데 도전한다. 국내 선수가 올스타전 MVP를 2번 차지한 사례는 아직 없다.

올스타전이 있는 첫날 10일에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대표팀 멤버들이 KBL 선발팀과 맞붙는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대표팀 사령탑인 유재학 모비스 감독이 다시 이끄는 대표팀은 김시래(LG)·윤호영(동부)·문태영(모비스), 김준일, 리카르도 포웰(전자랜드) 등으로 꾸린 KBL 선발팀과 경기한다.

이와 함께 어날 농구대잔치 부산 대회 금메달 멤버인 박수교·박인규·이상민·김승현·현주엽 등이 서지석·줄리엔 강 등의 연예인 대표팀과도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국내 슈터 계보의 주자인 신동파, 이충희·문경은도 나이를 뛰어넘는 슛 자존심 대결을 펼친다.

한편 찰스 로드(KT)·앤서니 리처드슨(동부), 찰스 가르시아(오리온스), 리오 라이온스(삼성)의 용병 덩크슛 대결과 김준일, 정효근(전자랜드), 장재석(오리온스), 박승리(SK) 등의 토종 덩크왕 대결도 볼거리다. 최고의 3점 슈터를 가리는 대결엔 정영삼(전자랜드), 김선형, 문태종, 허일영(오리온스) 등이 출전한다.

/정욱형기자 [illegible]

김선형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송재경 엑스엘게임즈 대표

이대형 파티게임즈 대표

김택진·송재경·이대형 빅3 CEO

을미년 게임업계 양띠 열전

을미년 양의 해를 맞아 게임업계에서도 양띠 CEO가 주목받고 있다. 양의 부드러우면서도 매서운 이미지는 치열한 IT 상황을 닮았다.

굴지의 게임기업 엔씨소프트의 김택진 대표와 엑스엘게임즈의 송재경 대표는 1967년생 양띠다. 두 사람은 온라인게임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 MMORPG '리니지' 열풍을 일으킨 게임 벤처 1세대이기도 하다. 현재 김 대표와 송 대표는 각각 다른 게임기업을 이끌고 있지만 '리니지'는 두 사람이 빚어낸 결과물이라 눈길을 끈다.

엔씨소프트는 을미년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 쌍끌이 흥행을 향한 포부를 펼친다.

지난해 11월 18일 김택진 대표는 2년만에 공식석상에 나와 모바일 시대 엔씨소프트의 미래 전략을 밝혀 화제를 모았다. 당시 메인 진행자로 나온 김 대표는 "엔씨소프트는 온라인과 모바일게임이 함께 가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엔씨소프트의 모든 신작은 모바일과 온라인이 긴밀하게 연동되도록 할 것"이라고 모바일 중심 사업 계획을 말했다.

엔씨소프트 온라인게임 차기작으로는 '리니지 이터널'과 '프로젝트 혼'이 공개됐다. 모바일 신작의 경우 블레이드&소울과 아이온의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한 '블소 모바일'과 '아이온 레기온스', 캐주얼 모바일게임 '패션 스트리트' 등이 모습을 드러냈다.

김 대표의 포부대로 엔씨소프트가 온라인게임뿐 아니라 모바일게임에서도 최고 위치에 오를 지가 을미년 관전 포인트다.

한편 송재경 대표는 세계 4대 문명을 소재로 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문명 온라인'으로 새해를 맞이했다. 이 게임은 최근 진행된 2차 비공개 테스트(CBT)에 참가자 5만명을 기록하며 순항하는 중이다.

'문명 온라인'은 지구의 모든 역사를 배경으로 실존 인물들과 영웅단을 만들어간다. 이용자가 속한 문명의 지속 시간은 7일이다. 일주일 안에 강력한 국가를 건설해야 하는 박진감이 게임의 묘미다.

송 대표는 "'문명 온라인'은 문명의 발전을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는 혁신적인 작품"이라며 "MMORPG 장르는 인생의 축소판이라 생각한다. '문명 온라인'에서 보다 역동적인 세계를 다루기 위해 기존 MMORPG의 불문율과 같았던 '끝'을 구현하려 했다"고 작품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 1979년생 젊은 CEO 눈길

모바일 게임 '아이러브 커피', '숲 속의 앨리스'로 유명한 이대형 파티게임즈 대표는 1979년생이다. 30대 젊은 CEO이지만 카카오가 선정하는 '올해의 게임'에 2년 연속 우수 개발사로 이름을 올리며 능력을 인증했다.

2011년 1월 설립된 파티게임즈는 2012년 '아이러브 커피' 흥행에 힘입어 2013년 매출 270억6000만원, 영업이익 91억3200만원을 기록했다.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21일에는 설립 3년 10개월 만에 코스닥에도 입성했다. 이는 모바일 업계 최단 기록이다.

우수한 사내 문화 덕분에 전체 직원의 절반 가량이 초창기 멤버일 정도로 이직률도 낮다. 지난해에는 게임업계에서 유일하게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파티게임즈 측은 "최근 선보인 '숲 속의 앨리스'가 카카오게임이 선정하는 올해의 게임에 선정됐다"며 "을미년 새해에도 좋은 서비스로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illegible] 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크로스파이어, 미쓰에이 캐릭터 영구 소장

온라인 FPS 게임 '크로스파이어'에서 미쓰에이 캐릭터를 영구 소장할 수 있게 된다.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는 자사가 서비스하는 온라인 FPS 게임 '크로스파이어'에서 미쓰에이 캐릭터를 영구 소장할 수 있는 행사를 15일까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동안 미쓰에이 캐릭터 4종을 모두 수집한 이용자들은 1만 캐시도 함께 받는다.

앞서 미쓰에이 멤버인 수지, 페이, 지아, 민은 지난해 1월 게임 내 4종의 캐릭터로 크로스파이어에 등장했다. 미쓰에이는 국내 서비스에 처음 추가된 특별 캐릭터로 지난 1년 동안 크로스파이어의 공식 홍보모델 역할을 해왔다.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의 김선호 캐주얼게임사업부장은 "미쓰에이 캐릭터들은 크로스파이어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영구제 캐릭터로 이용자들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illegible] 기자

닌텐도 '몬스터헌터 4G' 3월 출시

닌텐도 3DS 소프트웨어 '몬스터헌터 4G'를 올봄에 만날 수 있다.

한국닌텐도는 닌텐도 3DS 소프트웨어 '몬스터헌터 4G'를 3월 26일에 정식 발매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게임은 2013년 12월 출시된 '몬스터헌터 4'의 후속작으로 신규 몬스터가 대거 등장한다. 스토리 전개, 무기의 액션과 퀘스트 등에서도 큰 변화를 보인다.

한편 한국닌텐도는 사전 오프라인 행사를 이번달 17일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후쿠다 히로유키 한국닌텐도 대표는 "많은 이용자들이 멀티플레이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정기적인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llegible] 기자

컴투스 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

대만 지사 설립으로 중화권·동남아 공략

com2us 컴투스

모바일 게임 기업 컴투스가 대만 지사를 설립했다.

컴투스는 대만 지사 설립을 통해 아시아 게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대에 집중적으로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컴투스는 대만, 홍콩, 마카오 등 중국어 번체권 국가 공략은 물론 이를 거점으로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까지 범위를 확장해나갈 방침이다.

모바일 게임 업계에서 대만은 신흥 시장으로 떠오른 지 오래다. 지난해 대만은 모바일 게임 이용자수가 2013년 대비 20% 가량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컴투스는 대만 시장 분석과 전천후 마케팅을 바탕으로 자사 인지도를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콘텐츠 및 마케팅 현지화를 바탕으로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 '낚시의 신', '골프스타' 등 이미 대만에 진출한 기존 게임의 이용자 만족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드래곤 기사단', '소울시커' 등의 신규 타이틀 출시도 준비한다.

컴투스 측은 "대만 진출은 현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서머너즈 워'와 '낚시의 신'을 비롯한 자사 글로벌 게임들의 장기적인 흥행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illegible] 기자

새빨간 그녀,
내옆에 둬야겠다!
tvN 금토드라마
하트투하트
오늘 저녁 8시 30분 tvN 첫 방송
연출 이윤정 ♥ 극본 이정아 고선희 ♥ 출연 최강희 천정명 이재윤 안소희

신입 탈락 11명 합격통보

'갑질 논란' 위메프, "소통 미숙 인정한다"

위메프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하자 뒤늦은 사과와 함께 지원자를 다시 합격시키는 등 뒷수습에 나섰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해 12월 지역 마케팅 컨설턴트(MC)를 뽑는 과정에서 현장 테스트에 참가한 11명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주간의 현장 테스트 기간이 끝나자 불합격 통보를 했다.

이들은 위메프 측이 사전에 일부 정식 채용할 수 있다고 공지하면서도 정직원이 되기 위한 구체적 조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며 불합격 통보에 대해 반발했다.

특히 현장을 돌며 딜 계약을 따내는 등 정직원에 준하는 업무를 했으며 길게는 하루 14시간가량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이 계약을 맺은 점포의 할인 상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이후 '갑의 횡포'라며 논란이 일자 8일 공식 입장을 내고 위메프 측은 뒤늦은 수습에 나섰다. 불합격 통보를 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소통을 인정하며 이들을 다시 합격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박은상 대표는 "진정한 지역 마케팅 컨설턴트 그룹을 만들고자 심혈을 기울여 3차 최종 현장 테스트를 지켰고 동과 기준도 최고 수준으로 정했다"며 "성과를 냈지만 최종 합격자에 1명도 선발되지 못 했다"고 사과했다.

이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잠재력을 갖춘 인력을 찾아 직접 교육하는 방식으로 선발 제도를 변경하고 내외부 소통을 강화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식 입장에서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한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위메프 관계자는 "힘든 지역 MC를 버티지 못해 퇴사하는 직원들이 많아 이번에는 기존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 시즌 2의 개념으로 채용을 진행했다"며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딜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지역 영업을 컨설팅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자 했고 이에 부합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사전에 평가 기준을 밝히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개인의 역량 평가 기준이 10개 계약을 따오는 것이라고 공개한다면 가족 등 지인을 총동원해 성사시키려고 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는 개인의 역량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최수정기자 kcs0215@

백화점, 선물 사전예약 돌입

9일부터 최대 50% 할인

백화점 업계가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시작으로 대목 잡기에 나섰다.

먼저 롯데백화점은 9일부터 29일까지 대표적인 명절 선물 상품군인 청과, 정육, 견과류, 건강식품 등 50여 가지 품목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이 기간 한우는 5~10%, 굴비는 15%, 견과·곶감은 15~25%, 와인은 30~50%, 건강식품은 30~50% 할인된 가격으로 예약판매를 실시한다.

백화점 측은 올 설에는 한우세트 가격이 약 10%, 굴비세트가 20~50%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에 농산물 세트는 지난해 이른 추석 영향으로 저장 물량이 증가해 전년보다 가격이 10~20% 인하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세계백화점도 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지난해 추석(150개 품목)보다 20% 늘어난 180개 품목을 예약 판매한다.

현대백화점도 같은 기간 '설날 선물세트 예약 할인전'(사진)을 열고 한우·굴비·과일·건강식품 등 인기 선물 세트 200여 종을 5~50% 할인 판매한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오는 12일부터 명품관을 시작으로 설 선물세트 예약판매를 시작한다.

설 신규 선물세트는 지난해보다 26세트를 늘려 선택의 폭을 넓혔다. 특히 1~2인 가구를 위한 소용량 세트도 새로 판매한다.

4인으로 구성된 청과 세트 4종을 비롯해 굴비, 한우, 전통장, 조미향신료, 와인 등이 판매되고, 갤러리아 백화점 독자 한우 브랜드인 감진한우 등심 패키지와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채취한 자연산 전복세트 등도 나온다. 이 기간 주문객들을 대상으로 평균 20%(부문별 상이) 할인 혜택을 실시한다.

AK플라자의 경우 분당점과 평택점이 8일부터, 수원점은 16일부터, 구로본점은 19일부터 각각 설 선물세트 예약판매에 돌입해 다음 달 5일까지 점포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행사 기간 '제주 병유자 세트'와 고려시대 진상품으로 알려진 토종 한우 '제주 흑우 세트', 전통 발효녹차 '장흥돈차 황태전 세트', 조선 3대 명주 중 하나인 '감홍로주 세트' 등 비영리 국제기구인 슬로푸드 국제본부가 추진하는 전통음식과 문화보존 프로젝트 '맛의 방주(Ark of Taste)'에 등재된 향토 음식을 기획해 선보인다.

이 기간에 설 선물세트를 예약하면 청과·정육·선어·주류 등 품목별로 10~40%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구매금액대별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품권으로 증정한다.

/정영일기자 :rmaill@metroseoul.co.kr

새해 맞아 인기상품 '할인전'

강강술래, 한우사골곰탕·양념육 55%↓

리솜스파캐슬 천천향 이용권 무료증정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새해를 맞아 인기상품을 파격가로 판매하는 할인대잔치를 벌인다.

오는 15일까지 온라인쇼핑몰(sulla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선 대용량(600㎖-5봉-15인분)과 소용량(350㎖-5봉-10인분) 곰탕으로 구성된 보양식 한우사골곰탕박스를 55% 할인된 3만8800원에 판매한다.

또 매장 인기메뉴로 구성된 정먹고잘사자세트(한우불고기500g+술래양념520g+한돈양념500g+돼지양념500g)는 9만원(48%할인), 건강기원세트(강강양념520g+한우불고기500g)는 4만5000원(35%할인)에 선보인다.

이달 말까지 전 매장에서는 곰탕 대용량선물세트(600㎖-5봉-15인분)를 30% 할인된 3만6800원에 판매한다. 구매 때 소용량선물세트(350㎖-5봉-10인분·2만2500원)를 선물로 준다. 또 와인(카르멘 홀렌 리저브) 1병을 주문하면 와인키르멘 홀렌 카버네소비뇽) 1병을 증정한다.

한편 오는 31일까지 홈페이지(www.sullan.com) 온라인 이벤트에 신청 글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온 가족이 함께 스파·온천사우나를 즐기며 지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리솜스파캐슬 천천향 입장권을 증정한다.

천천향은 100% 천연 게르마늄 온천수(45℃)가 매일 공급돼 건강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아토피 피부를 가진 아이들은 물론 신경통·관절염·설안염 등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 엄마들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

/정영일기자

감기 예방 도움 비타민 충전 '건강 茶'

차가운 날씨가 지속되는 겨울에는 자칫 감기에 걸리기 십상이다. 한번 걸리면 털어내기 힘든 감기를 예방하는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체내의 비타민이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는 것이다. 집에서 직접 만들어 맛있하고 마실 수 있는 비타민 가득한 수제차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다.

자료 제공 : 메뉴판닷컴(www.menupan.com)

◆대추차

분량: 4인분 / 난이도: 초보환영 / 열량: 53㎉ / 조리시간: 60분

[재료] 대추 20알, 물 6컵, 설탕·꿀 각 약간

1. 대추는 빨갛고 쪼글쪼글해진 것을 골라서 깨끗이 씻는다.
2. 물에 대추를 넣고 한번 끓인 후 약한 불로 줄여서 은근히 끓인다.
3. 물이 빨갛게 우러나면 대추를 건져낸다.
4. 찻잔에 우러난 대추물을 넣고 설탕이나 꿀을 곁들이거나 3의 건져낸 대추의 씨를 빼고 같이 먹어도 좋다.

◆생강차

분량: 4인분 / 난이도: 초보환영 / 열량: 53㎉ / 조리시간: 30분

[재료] 생강 6쪽, 물 6컵, 설탕·꿀·잣·대추채 각 약간

1. 생강은 껍질을 말끔히 긁고 깨끗이 씻어 얇게 저며 썰어 놓는다.
2. 물은 주전자에 팔팔 끓이다가 저며 놓은 생강을 천천히 달여 생강이 말갛게 익을 정도로 끓여서 조리에 거른다.
3. 찻잔을 끓는 물에 따뜻하게 데운 후 찻잔에 생강차를 담고 식성에 따라 설탕이나 꿀을 넣어 먹으며 잣, 대추채를 위에 띄워 낸다.

◆유자차

분량: 4인분 / 난이도: 초보환영 / 열량: 53㎉ / 조리시간: 60분

[재료] 유자, 설탕 각 1㎏, 잣 약간

1. 유자는 소금으로 비벼가며 깨끗이 씻어 물기를 닦는다.
2. 유자를 절반으로 잘라 씨를 빼고 얇게 저며 용기에 담고 설탕을 유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붓고, 이 과정을 여러번 반복한다.
3. 일주일간 재워두면 설탕이 녹아 유자청이 되는데 설탕이 녹으면 위에 수북하게 설탕을 부어 유자청이 많이 생기도록 다시 재워 뒀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 유자향이 우러나면 잣을 띄워 유자차로 마신다.

시술 후에도 매끈한 얼굴

피부 컨디션 회복 '애프터 케어' 화장품에 주목

새해를 맞아 많은 여성들의 외모 가꾸기에 한창이다. 특히 성형외과, 피부과 등에서 간단한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시술 보다 중요한 것이 '애프터 케어'다. 성형외과 아이디병원 박상훈 원장은 "환자들이 수술 통증보다 시술 후 빠른 일상복귀를 염려한다"면서 "시술 후 동반되는 붓기, 피부 진정 등 후 케어를 철저히 할수록 만족도는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예민해진 피부 컨디션을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뷰티아이템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아이디올로지 '리얼 애프터 크림'은 아이디 성형외과에서 선보인 애프터 케어 제품이다. '리얼 애프터 케어' 콤플렉스 성분이 피부에 자극없이 붓기를 완화하고 진정시켜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 밖에 피부의 수분밸런스를 케어해주는 호박씨오일, 얼굴 홍조 완화와 피부의 장벽을 강화해주는 비타민 K3 성분 등이 함유됐다.

메디컬 뷰티 브랜드 에스트라의 '리제덤RX 클리어림 K 크림'은 피부과 관리 후 붉은기를 케어하고 생기를 복돋아주는 크림이다. 수시로 덧발라주거나 피부관리 3~4일 전부터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아벤느의 '시칼파트 에멀전 레스토라트리스'는 시술 후 자극 받고 손상된 피부를 위한 스페셜 케어 크림이다. 진정 효과가 뛰어난 아벤느 온천수가 들어 있어 피부 진정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붉어진 피부 비비크림으로 보정

시술 후에는 웬만하면 메이크업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만, 외출할 때는 비비크림을 이용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야 한다. 비비는 블레미시 밤(Blemish Balm)의 약자로, 피부과 시술 후 발갛게 달아오른 피부를 커버하기 위한 제품이다.

프랑스 천연 유기농 브랜드 멜비타의 '로즈넥타 비비크림 SPF15'은 유기농 와일드 로즈 추출물이 하루종일 촉촉하게 가꿔주고, 생활 자외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온프레의 '가마르드 BB(Blemish Balm Bio)크림 SPF20 PA++'은 천연 미네랄 필터의 색소를 사용해 피부 호흡을 방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피부톤을 보정한다.

/석지현기자 jsw@metroseoul.co.kr

예쁜 속옷으로 기분전환
8일 서울 롯데플러스 영등포점에서 모델들이 다양한 이너웨어를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전국 140개 점포에서 올로건스&프레드 등 유명 브랜드 이너웨어를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이너웨어 대전'을 진행한다.
/홈플러스 제공

오픈마켓, 큐레이션 쇼핑 '심혈'

모바일 시장 큰폭 성장에 서비스 강화

오픈마켓 업계가 큐레이션 쇼핑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 쇼핑 규모 중 PC 거래액이 31조9600억원으로 전년 보다 5.4% 줄어 역신장한 가운데 모바일은 13조1400억원으로 122.3% 뛰었다. 협회 측은 올해도 모바일 시장이 70.9%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쇼핑 흐름이 모바일로 빠르게 재편되자 오픈마켓 업계는 모바일 강화를 위한 대응책으로 큐레이션 쇼핑을 내세우고 있다. 큐레이션 쇼핑은 상품과 가격 등의 정보를 선별해 추천해 주는 맞춤형 쇼핑 방식으로 주로 소셜커머스 업계가 이를 사용해 왔다. 특히 온라인에서 주로 해왔던 상품을 나열하는 방식은 모바일 화면에서는 소비자들이 피로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상품을 선별하는 큐레이션이 모바일에 최적화된 방식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입을 모은다.

올해도 업계는 큐레이션 쇼핑을 내세워 모바일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롯데닷컴은 다음 달부터 'MD가 간다'를 고정 플랫폼으로 상시 운영한다. 2013년 8월 첫 도입해 카테고리 별로 MD가 직접 산지와 제조공장 등을 찾아가 상품을 선정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다음 달 16일부터는 매주 월요일 한 가지 소재를 집중 조명하고 PC와 모바일 메인 화면에도 고정적으로 노출시킬 계획이다.

11번가는 지난해 7월 기존의 쇼킹딜에서 타임마케팅을 강화해 '쇼킹딜십일시'로 개편했다. 4000만 개의 상품 수를 7000개로 대폭 줄여 노출 상품 집중도를 강화했고 추천 기반으로 쇼핑 피로도를 감소시켰다.

G마켓이 운영하는 G9 역시 지난해 12월 모바일앱 업데이트를 단행, 현재 진행 중인 기획전과 프로모션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매출이 호조를 보이자 올해도 쇼핑 편의 강화를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옥션은 일일 행사를 확대 개편해 '올킬 올데이' 코너를 운영 중이다. 모바일 화면에서 해당 코너를 카테고리 중 앞쪽에 배치하고 높은 할인율과 입고 상품 강화하고 있다.

/김수정기자 ksj0215@

유아용품, '리빙 제품'이 주도

신상 출시 마케팅 총력

유모차, 카시트 등 외출용품에 국한돼 있었던 유아용품 시장에 리빙 제품이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베페 베이비페어'에는 지난해 영유아 리빙용품 참가업체가 전년 대비 57% 이상 늘어났다. 이처럼 유아 리빙시장이 확대되자 기존 업체들은 물론 리빙업계에서도 제품 라인을 강화하는 등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최근 한 육아 예능 프로그램에서 삼둥이가 사용하면서 화제가 된 '오르 베타 식탁의자'는 7회 연속 완판 행렬을 이어갈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제품은 생후 6개월부터 10세까지 성장 단계에 맞춰 사용 가능하며 A형 프레임으로 설계돼 좌우에서 가해지는 힘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감을 준다.

유아매트 '크림베리'는 베이비페어 주최사 베페와 유아매트 전문기업 일진매트가 공동 기획한 제품이다.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 아이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쉽고 편리하게 접을 수 있어 놀이의 소파 등 다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에어블랑의 '에어폼 유아소파'는 국내 최초의 특허 기술 '타공기법'이 적용된 에어폼을 사용해 아이들이 장기간 사용해도 편안한 쿠션감을 제공한다. 3kg 미만의 무게로 아이들도 쉽게 공간을 이동해 사용할 수 있으며 접착제 등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아 안전하다.

/박지원기자 pjw@

박준뷰티랩, 올 유행 예감 헤어스타일 발표

아름다움을 디자인하는 박준뷰티랩이 2015년 트렌드를 발표했다.

올해 패션 트렌드는 물론 헤어의 역사와 작품세계를 토대로 작업한 이번 콘셉트는 'Maximalism 2015 Color&Wave'다. 60's, 70's 빈티지함을 바탕으로 과거에서 영감을 얻어 헤어로 표현했다.

브로 박준을 중심으로 박준뷰티랩 총신대점 수 실장, 준앤안티 명륜점 그레이스 부원장과 우미 실장, 청담점 메이크업 수진원장, 최하연 포토그래퍼가 함께 작업한 박준뷰티랩 2015 트렌드를 살펴보자.

먼저 '에어 웨이브(Air wave)'다. 구분 마디를 만들어 웨이브를 내는 때문 웨이브를 시도해 풍성하며 도시적이고 화려한 컬을 나타냈다. 공기감이 가득한 웨이브로 업스타일을 표현했으며 올해 대표 트렌드가 될 것으로 박준뷰티랩 측은 기대하고 있다.

투 톤 포인트 컬러 & 웨이브(Two tone point color & wave)는 밝지 않은 베이스 컬러에 포인트 컬러를 줘 풍성함과 세련미를 강조한 스타일이다. 자연스러운 느낌을 선호하는 고객의 니즈에 맞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도할 수 있는 스타일이다.

이어 '네오 페미닌 롱(Neo feminine long)'은 2015년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레트로 패션에 잘 어울리도록 헤어 컬러를 앤티크 로즈 핑크로 했다. 자연스러운 볼륨감과 페미닌 한 부드러운 질감을 연출해 주면 돈 꾸미지 않은 헤어스타일이다.

마지막으로 '모던 큐트 웨이브 업(Modern cute wave up)'은 자연스럽게 흐르는 앞머리와 반대로 컬리펌하고 역동적인 웨이브가 돋보인다. 탈색 후 바이올렛 레드로 헤어 컬러를 입혀 파스텔 컬러 분위기를 연출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리조트, 다양한 이벤트

겨울방학을 맞아 전국 리조트들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먼저 대명리조트는 중국 하이난에 있는 미션힐스 하이커우 리조트와 Chef Exchange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각 리조트 대표 셰프 3명이 서로의 리조트를 방문해 본국의 전통요리를 선보이는 프로젝트로 다음 달 15일까지 비발디파크에서 진행된다. 또 비발디파크에서 스키 리프트권 영수증이나 시즌권을 제시하면 오션월드를 1만원에 이용할 수 있고 승마클럽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충북 제천의 리솜포레스트는 효재처럼의 자연주의 문화 디자이너 이효재와 손잡고 리조트 내에서 다양한 자연주의 문화 콘텐츠를 마련했다. 100여 종의 수목과 야생화 등으로 유명한 리조트는 자수를 놓으며 차를 마실 수 있는 자수방 카페 '효재네 뜰'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자연식, 건강요리 스쿨 등을 진행할 '담 요리스튜디오'와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전문 힐링센터도 문을 연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다음 달 1일까지 한화리조트 평창 휘닉스파크에서 무료 스트레칭 요가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또 아쿠아플라넷 여수에서는 패키지권을 파격적으로 할인하는 '얼리버드' 할인 이벤트와 '나는 엄마다' 이벤트가 이어진다.

김해에 위치한 롯데워터파크는 할리 고객이 1만3000원에 워터파크를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와 함께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엄마를 위해 '맘 포근 특별 우대'를 선보인다. 또 2월 말까지는 겨울방학을 맞은 학생들을 위한 할인 이벤트도 전개한다.

한겨울에도 추위 걱정 없이 다채로운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실내 패밀리파크 웅진플레이도시는 개관 5주년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총 5만명에게 기념 경품이 증정되고 어린이들을 위한 '뽀로로파크 싱어롱쇼'가 펼쳐진다. 게다가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5개 테마 스파가 운영되고 현장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황재용기자

겨울휴가 어디로 떠날까?

온천·오로라 관측 등 이색 해외여행 인기

감추위에 몸이 저절로 움츠러드는 날씨지만 겨울휴가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다. 따뜻하면서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이색 해외여행을 소개한다.

먼저 뉴질랜드에서는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온천에 몸을 담그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온천여행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와 반대로 이제 막 여름이 시작된 온화한 기후 속에서 자연이 만들어낸 최고의 미네랄 온천을 만끽할 수 있다. 특히 뉴질랜드에서 가장 다채로운 지열 관광지로 유명한 '남태평양의 천연 온천' 로토루아는 전 세계 관광객들로부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세계 10대 지열 온천 중 하나인 폴리네시안 스파도 빼놓을 수 없다.

최근 들어 관심이 급증한 노르웨이 오로라여행도 색다른 매력이 있다. 푸르른 옥색 빛과 깜박이는 빛들의 향연이 수를 놓는 하늘은 많은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한다. 또 올겨울은 지난 10년 중 최고의 날씨를 보여주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오로라를 관측하기 좋은 조건을 갖췄으며 노르웨이를 포함한 스칸디나비아반도와 시베리아 등을 아우르는 오로라 존도 감상할 수 있다. 게다가 얼음 낚시와 고래 체험 등 다양한 북극 어드벤처도 여행의 재미를 더한다.

이와 함께 하나투어는 1월의 도시로 캐나다 앨버타를 선정했다. 앨버타는 밴프 국립공원과 레이크 루이스 등 캐나다 특유의 청명한 자연 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투어는 ▲밴프 어퍼 핫 스프링스 노천 온천욕 ▲헬리콥터 투어 ▲개썰매 체험 등 앨버타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할 10가지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추워서 더 즐거운 '겨울 축제'

전국 곳곳서

추위가 계속되면서 겨울 축제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의 겨울 축제를 소개한다.

먼저 겨울 축제의 꽃은 얼음 낚시다. 강원도 화천의 '산천어 축제'가 가장 대표적인데 축제는 매년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려 CNN이 '세계 겨울 7대 불가사의'로 꼽은 바 있다. 또 경기도 안성과 이천, 그리고 인천 강화에서는 빙어 축제가 열린다. 송어를 맨손으로 잡고 그 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평창 송어 축제'도 서울 쪽 대표 축제이며 경기도 파주와 가평에서도 송어를 주제로 한 축제가 이어진다.

올 겨울 추위를 즐길 수 있는 겨울 축제가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사진은 평창 송어 축제 얼음 낚시를 하는 어린이들 /연합뉴스

이와 함께 겨울에만 만날 수 있는 눈꽃 축제도 빠뜨릴 수 없다. 강원도는 물론 경기도와 경남, 전북에서도 다양한 눈꽃 축제가 준비됐다. 그중 가장 유명한 눈꽃 축제는 '태백산 눈 축제'로 눈꽃 트레킹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게다가 1월 중순까지 개최되는 '대관령 눈꽃 축제'와 경기도 포천의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도 겨울의 매력을 발산한다.

아울러 경기도 포천 '허브아일랜드'에서는 '불빛 동화축제'가 열리며 경기도 가평 아침고요수목원에서는 '오색별빛정원전'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전남 보성의 '차밭빛축제'는 전국에서 유일한 차밭 불빛 축제다. /황재용기자

고품격 설을 즐기세요~

르네상스 서울 호텔, 내달 16일부터 패키지

르네상스 서울 호텔이 설을 맞아 다음 달 16일부터 22일까지 일상에서의 힐링이 가능한 '설 패키지'를 선보인다.

패키지는 '딜라이트 서울' 패키지와 '붐슬 붐슬' 패키지로 두 패키지 모두 디럭스 룸에서의 1박, 실내 수영장과 르네상스 레크리에이션 센터 무료 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딜라이트 서울 패키지는 한과와 식혜 등이 제공되며 '붐슬 붐슬' 패키지를 이용하면 카페 엘리제 2인 조식과 메가박스 무료 영화티켓 2매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문의 02)2222-8500 /황재용기자

서울 서남권 대표 병원으로 도약한다

서남병원, 4개 진료과·응급실 본격 가동

이화여대 의료원(원장 이순남)이 운영을 맡은 서울시 서남병원이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한 신규 개설 4개 진료과와 24시간 응급실을 본격 가동한다.

새로 진료를 시작한 과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정신건강의학과다. 의료원은 시범 운영을 바탕으로 의료 서비스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료원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던 24시간 응급실도 마련했다.

아울러 의료원은 지역의 의료 수요를 만족시키면서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건강강좌 등을 개설해 공공의료사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쪽방촌 주민이나 북한 이탈주민 등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의료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진료비 감면을 확대하는 등 지역주민을 위한 필수 의료지원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이순남 이화여대 의료원 원장은 "지역사회의 오랜 요구였던 진료과 추가 개설과 응급실 운영 등 현안을 해결해 서남권 대표 공공병원이자 지역 거점 병원으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됐다.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해 서남병원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원은 지난해 3월 서남병원 재수탁 운영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황재용기자

국민과 가장 가까운 생활

'우체국'

아파트 분양시장, 어게인 2009?

기자 수첩
박선옥 <경제산업부 기자>

새해 전국적으로 40만 가구의 새 아파트가 공급된다. 대우건설이 역대 최대인 3만여 가구의 물량을 확정했고 GS건설도 지난해보다 늘어난 1만78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다른 건설사들 역시 1만~2만 가구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새 아파트가 쏟아지는 데는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청약1순위자 증가가 예상되면서 분양시장의 경쟁력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경기침체로 최근 몇 년간 주택사업을 포기하다시피 했던 건설사 입장에서는 기회가 왔을 때 최대한 많은 물량을 밀어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의 분양시장 회복세가 지난 2009년과 닮아 있다는 데 있다. 당시 MB정부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인하해 유동성을 확대했고, 지방 미분양에 대해 LTV도 완화했다. 또 취득세, 양도세·종부세 등 감면하고, 전매제한도 단축했다.

덕분에 2008년 금융위기로 크게 위축됐던 분양시장은 2009년 제도약에 성공했다. 그러나 그때의 성공은 2년 뒤 더 깊은 불황으로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입주를 포기한 계약자들로 불 꺼진 아파트가 속출하고 잔금을 받지 못한 건설사들의 발목까지 잡았던 것.

실물경기 회복 없이 규제 완화를 통해 인위적으로 부양한 부동산시장은 두기간만 암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내포한다.

물이 들어올 때 배를 띄우려는 건설사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분양 시기를 잡히는 여유로운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세계 각국 "내가 샤를리"

프랑스만 10만 명 거리로… 파리 테러 추모 물결 이어져

7일(현지시간) 프랑스 풍자전문 주간지 샤를리 엡도 외 파리 사무실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테러가 발생, 세계 각국에서 추모의 물결이 번지고 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10만여 명이 거리로 나와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기자들의 생명은 이같았지만 참석자의 대부분은 언론 자유를 지지하는 일반인이라고 외신은 덧붙였다.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의회 건물 앞에는 추모객 1000여 명이 모였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수백명이 프랑스 대사관 앞에 모여 "언론의 자유"를 외쳤다.

런던 트라팔가르 광장에 모인 군중은 휴대전화 화면에 '내가 샤를리다' 슬로건을 띄우고 행진했다. 스위스 제네바·로잔에서도 700여 명이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표했고, 스웨덴 스톡홀름과 네덜란드 헤이그, 오스트리아 빈 등지에서도 추모객이 잇따랐다.

온라인에서도 추모 열기가 이어졌다.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프로필 사진을 '내가 샤를리다' 슬로건으로 바꿨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민이 8일(현지시간) 프랑스 대사관 앞에서 '나는 샤를리다'라는 프랑스어 문자를 가슴에 달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 연합뉴스

각국 정상도 애도의 뜻을 표하며 테러를 강력히 규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가장 오랜 동맹을 겨냥한 공포스러운 테러"라며 "프랑스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테러리스트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테러 공격의 희생자와 프랑스 국민에게 위로의 뜻을 보낸다"고 덧붙였다.

토니 애벗 호주 총리는 "표현의 자유는 자유 사회의 초석"이라며 "호주 정부는 파리에서 발생한 잔학행위를 규탄한다. 호주인은 이번 야만적 행위로 목숨을 잃은 이들의 가족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벗 총리는 특히 이번 테러를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와 연계하며 "시드니에서 발생한 인질극과 마찬가지로 이번 테러는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IS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한미 연합훈련 지속 北 주장 이치 안맞아"

국방부는 8일 북한 국방위원회의 한미 연합훈련 관련 입장 표명 요구에 대해 "한미 연합체제가 있는 한 훈련은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훈련을 하지 않으면 부대를 유지할 수가 없다"며 "또 한미 연합체제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이같이 말했다.

북한 국방위는 7일 대변인 담화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거론하면서 "남조선 당국은 나라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긴장격화의 길로 계속 나갈 작정인가 하는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한미 연합훈련과 우리 군이 하는 각종 훈련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방어적 훈련인 만큼 북한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7일 안에 끝내는 속전속결식 작전 계획을 세웠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우리가 북한의 작전 계획을 입수한 바는 없다"며 "북한은 과거부터 단기속결전 위주로 작전 계획을 세운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뉴스&뉴스

안철수, 장하성 교수와 경제 해법 찾기 회동

●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한때 사이가 멀어졌던 측근들과의 관계 회복에 나서기 시작했다. 안 전 대표 측은 오는 13일 고려대 장하성 교수와 한국 경제 해법을 찾기 위한 좌담회를 갖는다고 8일 밝혔다. 안 전 대표가 장 교수와 공개 석상에서 함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난해 안 전 대표가 독자 정당을 준비하던 시절 이후 처음이다.

"대북전단, 주민 안전위해 필요하다면 조치"

●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주민의 안전을 위해 취할 바가 있다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류 장관은 8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들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인영 "끝까지 완주…단일화 하지 않겠다"

● 새정치민주연합 당권 경쟁 본선에 진출한 이인영 후보는 8일 "처음부터 당선이 목표였다. 끝까지 완주하겠다"며 본선에서 후보 간 단일화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후보 간 합종연횡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저는 마라톤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악수하는 자원외교 국조 특위 여야 간사 자원외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권성동 여당 간사(오른쪽)와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야당 간사가 8일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 합의

26일부터 예비조사

여야는 8일 이명박 정부로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에 합의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포함한 증인 채택 문제도 논의했지만 의견이 대립해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국조 조사범위를 특정정부에 국한하지 않고, 조사 기간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4월 7일까지 100일간으로 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기간은 필요한 경우 2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예비조사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 사이에 실시하고 기관보고는 다음달 9일부터 23일까지, 같은달 23일부터 27일 사이에 2차례에 걸쳐 최소 5번 이상 진행된다.

오는 3월 중 현장 검증을 벌이고 이후 청문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보고와 서류 제출 기관은 ▲해외자원개발 사업 시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관련 공기업 ▲자원외교와 에너지협력외교 관련 기관 외교부 ▲해외자원개발 금융관련 기관 한국수출입은행 ▲공기관 운영과 평가기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해외자원개발 감사와 수사 기관 법무부, 감사원 등으로 정했다.

/조현정기자 jhj@

제2롯데월드 주변 지역 3곳서 도로 침하·균열

서울시, 신속한 조치 통보

제2롯데월드 주변 도로 3곳에서 도로 침하와 균열 현상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제2롯데와 석촌호수 주변 도로에 대해 점검을 한 결과 송파대로 제2롯데월드 롯데몰 앞, 석촌호수로 본가설렁탕 앞, 삼학사로 서울놀이마당 교차로에서 이같은 현상이 발견됐다.

롯데몰 앞과 서울놀이마당 교차로에선 도로 부분 침하가 발생했으며 본가설렁탕 앞에서는 30m 길이의 균열이 발견됐다.

시는 관할 동부도로사업소와 송파구청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신속히 조치하고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면서 "롯데월드와 석촌호수 주변 도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시행하라"고 통보했다.

시는 일단 제2롯데월드 공사와의 연관성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도로 침하의 원인 제공 주체와 도로 관리 주체가 어디인지 파악되면 서울시와 협의해 후속조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임시개장된 제2롯데월드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질 않자 "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재발하면 사용 승인 취소 등 제재를 가하겠다"고 지난 5일 경고한 바 있다.

/허정우기자 cyclone@metroseoul.co.kr

육군3사관학교 첫 여성도 "훈련, 신고합니다" 8일 오후 경북 영천 육군 3사관학교에서 올해 처음 선발된 여생도 20명을 포함한 3사 52기 예비생도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5주간 기초군사훈련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진도해역서 어선 전복… 1명 사망 8일 오후 1시 29분 전남 진도군 고군면 두저도 남쪽 3.6㎞ 해상에서 "홍월 중 어려워 구조 요청을 했던 어선이 갑자기 파도 쓸려 전복됐다. 선원 3명 가운데 2명은 인근 어선에 구조됐지만 1명은 숨졌다. 사진은 이날 전복된 진도선적 2.93t 급 연승어선이 붉은 밑바닥을 드러낸 채 전복된 가운데 어선과 해경안전서 측이 구조·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황우여 "수능·EBS 연계율 재조정 논의"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8일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과 EBS 강의 및 교재의 70% 연계율을 재조정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수능과 EBS의 연계율을 낮출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행 연계율 70%를 너무 고정적으로 하지 않고 수능체제 개편과 맞물려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EBS 교재가 교과서의 몫을 빼앗는다고 사교육화되어가는 경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 장관은 수능 개편 방안과 관련 "교육과정에 충실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수능체제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수능 난이도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교육과정의 기본에 부합해 변동폭이 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난이도는 일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허정우기자

전투근무지원 군인 2500명 감축한다

국방부는 8일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민간 개방을 통해 2019년까지 현역 군인 2500여 명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전방 보급부대가 담당하는 세탁, 각종 물자정비, 폐품처리 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해당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은 전투 위치에 재배치할 계획이다.

12개 보급대대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800여 명, 군마트(PX) 관리병을 민간인 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으로 1300명의 군인을 감축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 밖에 군 휴양시설 관리 등 민간 인력 활용이 적합한 분야에서 현역 군인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것이 군 당국의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이전부대의 시설물 관리, 청소, 제초업무 등도 민간업체에 위탁해 일과 후 장병들의 휴식을 보장할 방침이다. /조현정기자 (뉴스)

'채동욱 내연녀' 집유

채동욱(57)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임모(56)씨가 가정부를 협박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임씨는 유흥업소 옛 동업자와 함께 가사도우미 모자(母子)를 협박해 4000만원 상당의 채무 중 1000만원만 갚고 완불영수증을 쓰게 하는 방법으로 3000여만원의 채무를 부당하게 면제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또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형사사건에서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구속피고인의 아내로부터 2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허정우기자

작년 국내 지진 49회… 예년과 비슷

〈2.0 이상〉

서해안서는 역대 4번째 큰 5.1 강진 발생

지난해 국내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총 49회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사람이 느끼는 '유감 지진'은 11회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상청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국내·외 지진 발생 현황'을 8일 발표했다.

지난해 규모 2.0 이상 지진의 발생 횟수는 49차례로 이는 기상청이 지진을 디지털 방식으로 관측하기 시작한 1999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연평균 횟수 47.7회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유감 지진 발생 횟수는 11회로, 예년의 연평균 8.7회에 비해 많아졌다.

대륙은 23회, 해역 26회 지진이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10회), 북한(7회)에서 지진이 빈발했다.

작년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는 4월 1일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서쪽서쪽 100㎞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5.1 지진이었다. 이는 1978년 기상청이 계기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후 4번째로 큰 지진으로 기록됐다.

당시 태안에서는 창문이 흔들렸으며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서 창문과 침대가 흔들리는 정도의 지진을 느꼈지만 피해는 없었다.

내륙에서는 9월 23일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8㎞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3.5 지진이 가장 컸다. 이 지진으로 경주에서는 건물과 유리창이 많이 흔들렸고, 울산·대구·포항에서는 '쿵' 소리와 함께 건물의 흔들림이 포착됐다.

미국지질조사소(USGS)에서 발표한 2014년 전 세계에서 발생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총 1734회였다. 1978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1636회보다 98회 증가한 수치다.

규모가 가장 큰 지진은 4월 2일 칠레 이키케 북서쪽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8.2의 지진이다. 이로 인해 6명이 숨지고 가옥 2500여 채가 파손되는 피해가 났다.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피해를 줬던 것은 8월 3일 중국 루뎬현에서 발생한 규모 6.5의 지진이었다. 이 지진으로 인해 617명이 숨지고 가옥 1만 2000여 채가 무너졌다. /허정우기자

서울여대, 3개 대학 공동 연구 세미나

서울여자대학교는 9일 교내 50주년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함께 3개 대학 공동으로 '대학입학전형과 학생부'라는 주제로 연구 세미나를 개최한다.

공동 연구 세미나는 2014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에 선정된 서울여자대학교와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가 공동 연구를 통해 대입 전형 신뢰도를 증진시키고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8월부터 순회 개최하고 있는 세미나이다.

이번 세미나는 현 대입 전형의 주요 전형 요소인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쟁점 사항을 논의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공동 연구 주제를 발표하고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여 방안을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현정기자

아들 낳기 위해 사기 결혼

metro HongKong

부친 유산 더 받으려

湘男稱港女騙婚 為遺產借精生子

중국 후난성 헝양시 출신의 닝사오화(45)는 공개청혼 광고를 목에 걸고 거리로 나섰다. 착한 여자를 만나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라는 그에게는 기막힌 사연이 숨겨져 있다.

샹탄시의 기계 공장에서 일하던 닝사오화는 1995년 위모씨와 결혼했지만 부인의 외도로 이혼했다. 97년 둥관시의 장난감 공장에서 일하던 중 그는 후핑(가명)이라는 장난감 디자이너에게 끌리게 됐다. 닝사오화는 그에게 마음을 전했지만 거절당해 샹탄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98년 후핑에게 사실은 그를 좋아했다는 전화를 받게 된다. 곧은 재회를 하고 결국 결혼을 했다. 99년 후핑은 닝사오화의 고향에서 아들을 낳았다. 한 달쯤 뒤 후핑은 닝사오화에게 장을 봐오라고 한 뒤 시부모에게는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오겠다며 나갔다. 그렇게 나간 후핑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아내가 납치됐다고 여겨 신고를 하고 여기저기 공고를 붙였다. 99년부터 2004년까지 4만㎞를 돌아다녔다. 2004년 선전방송국은 그의 소식을 듣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언론과 경찰의 도움으로 그는 후핑이 93년 홍콩인 황모씨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98년 초 황모씨의 아버지는 병이 위중하자 아들이 있는 자식에게는 재산 30%를 더 주겠다는 유언을 남겼다. 황모씨는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부부는 유산을 더 받기 위해 정자를 빌려 아들을 낳기로 결정, 후핑에게 마음을 보인 닝사오화에게 접근했다.

닝사오화는 "10년간 고통 속에서 살았다"며 "좋은 여자를 만나 남은 인생을 평범하게 사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정리=조선미기자

Nouveau coup de filet sur le trafic de cocaïne cité Reverdy

코카인 밀매 혐의 7명 체포

metro France

최근 파리 마약수사단이 쥘르베르디 국영 서민임대주택에서 7명을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했다.

체포된 피의자 7명은 구류 상태에 놓였으며 경찰은 이들이 사를드골국제공항에서 같은 시각에 체포된 다른 3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공항에서 붙잡힌 나머지 세 명은 3kg의 코카인을 럼주병에 넣어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은 해당 마약이 다시 팔리고 분배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국영 서민임대주택은 안전구역(ZSP)에 있어 마약밀매와 관련하여 경찰이 자주 출동하는 곳이다. 지난 6월에도 대략 30명의 사람들이 코카인과 크랙 밀매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에나이스 [illegible] 기자
정리=홍주희 인턴기자

"역대급 공격" vs "비밀기지 없다"

북한-미국 2차 사이버전 시작

"미국 역대 가장 심각한 사이버 공격이었다. 방치하면 계속 반복될 것이다."

'북한 소행'론에 회의적인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에서 이같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AP·AFP 등 외신에 따르면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7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국제 사이버안보 콘퍼런스에서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북한의 해킹이 미국의 이익을 겨냥한 역대 가장 심각한 사이버 공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공격을 통해 북한이 별다른 대가 없이 저비용으로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면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을 수 있다"며 "이런 인식이 추후에 유사한 행위를 하도록 북한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코미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도 이날 북한이 소니를 해킹했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코미 국장은 "해커들이 정체를 숨기려고 가짜 서버를 사용했지만 수차례에 걸쳐 북한에서만 사용하는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로 접속한 흔적을 발견했다"며 "그들의 실수 덕분에 해킹이 누구 소행인지가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FBI는 앞서 소니 해킹은 북한이 개발한 악성코드와 명백한 연관성이 있고 지난해 한국의 은행과 언론사 등을 공격할 때와 같은 코드가 사용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중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는 북한이 중국 내에 비밀거점을 마련해 놓고 장기간 사이버전의 전초기지로 운용하고 있다는 미국 CNN의 보도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의 뤼차오 연구원은 8일 "CNN방송이 탈북자 주장을 인용해 보도한 중국 내 비밀거점 운용설은 어떤 증거도 없다"며 "중국은 북한이 중국 내에 이런 사이버전 비밀거점을 설치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북 전문가들은 현지 중국 기업에 고용된 북한 IT인력만으로도 충분히 해킹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대통령 잡는 추위 지방 순회에 나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7일(현지시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로물러스 공항에 도착, 전용기 계단을 내려오는 도중 강풍이 불자 눈감은 표정을 짓고 있다. /AP 연합뉴스

에볼라 사망자 8235명

이스마일 울드 셰이크 아메드 유엔 에볼라긴급대응단(UNMEER) 단장이 7일(현지시간) 라이베리아 몬로비아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에볼라 확산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WHO, 100% 격리 실패

서아프리카 3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집계된 에볼라 감염자는 2만747명, 사망자는 8235명이라고 7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가 밝혔다.

감염자와 사망자 가운데 대다수는 기니·라이베리아·시에라리온 등 서아프리카 3개국에서 발생했다.

시에라리온에서는 4일까지 9780명이 감염돼 2943명이 숨졌다. 라이베리아에서는 2일까지 8157명이 감염돼 3496명이 사망했다. 기니에서는 4일까지 2775명이 감염돼 1781명이 목숨을 잃었다.

WHO는 에볼라 확산을 막기 위해 서아프리카 3개국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1일까지 에볼라 감염자를 100% 격리·치료하고 모든 사망자는 안전하게 매장한다는 핵심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WHO는 "이들 국가가 에볼라 치료 시설의 병상을 늘려 모든 환자를 감당할 수준은 갖췄다"면서도 "병상이 준비된 지역과 에볼라 발병지가 일치하지 않아 모든 환자를 격리·치료한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선미기자

삼성전자 '어닝쇼크' 벗었다

작년 4분기 영업익 5조 복귀… 반도체 회복

삼성전자가 지난해 3분기 어닝쇼크를 극복하고 4분기 '영업익 5조'에 복귀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에 5조 2000억원의 영업이익(잠정실적)을 올렸다고 8일 공시했다. 지난해 3분기(4조600억원)보다 28.08% 증가한 실적으로 시장예상치를 웃돌면서 3분기 실적을 털어낸 모습이다. 이는 반도체 호황과 연말 완제품 성수기를 발판 삼아 반등세로 돌아선 것이다.

◆ 반도체 5조원 회복 이끌어

삼성전자의 반등세를 이끌어낸 사업 부문은 반도체(DS)의 선전 덕분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반도체부문에서만 2조 6000억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3분기 2조 2600억원에 비해서는 15% 가량 늘어난 규모다. 사실상 반도체가 4분기 영업이익의 절반이상을 도맡으면서 이번 실적을 이끌어낸 것이다.

반도체 사업은 올해도 삼성전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2013년 세계 최초로 대용량 DDR4 D램 양산에 성공했다.

지난해 하반기 글로벌 D램 시장은 DDR3에서 DDR4로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현재 시장점유율 42.3%(2014년 3·4분기 기준)보다 훨씬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스마트폰 인도시장 중심으로 반격

4분기 실적반등에는 스마트폰 사업(IM부문)의 성장도 한 몫 했다. 갤럭시S 시리즈 및 노트4와 엣지 등 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집중됐다.

대증 하나대우증권 수석연구위원은 "IM부문의 출하량은 오히려 전분기보다 줄었으나 비용 통제로 이익이 개선된 부분이 있고 환율의 영향이 있었다"며 "갤럭시 노트4 등 고가 제품도 실적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지만 상대적으로 마진이 큰 노트4 같은 프리미엄급 제품 판매 비중은 늘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세계 3위 스마트폰 시장으로 성장한 인도를 잡기위해 타이젠폰을 정면에 내세웠고, 갤럭시 A 시리즈로 중국 시장을 동시 공략하고 있다. 특히 100달러 안팎의 가격을 내세워 인도의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승혜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IM부문의 지출이 시장 예상보다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판매 증가보다 비용 삭감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사업의 본격적인 실적 반전이 이뤄질지 여부는 당분간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점은 분명히 탈출했으나 IM부문이 예전 같은 성장세를 회복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중국에서 샤오미 뿐 아니라 '제2의 샤오미'까지 등장하는 환경이라 올해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market index <8일>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1904.65 (+20.82)	561.43 (+5.11)	2.07 (-0.01)	1096.00 (-6.20)

올레 순액폰 출시 KT는 삼성전자 신모델 '갤럭시 록스' 등 출고가 10만~40만원대로 출고가를 낮춘 총 5종의 '올레 순액폰'을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KT 제공

車 '늑장 리콜'에 벌금 불량 해외 쇼핑몰 공개

리콜 요구에 늑장 대응을 하는 완성차업체에 벌금을 부과한다. 소비자 피해가 잦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의 명단도 공개한다.

정부는 국민들의 안전하고 현명한 소비를 위해 이같은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자동차 결함에 대한 리콜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기 위해 '늑장리콜'에 대한 벌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외직구(직접구매) 확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다발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공개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국제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농축산품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조사 결과를 적극 공개한다. 상습적인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책도 내놓았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열람과 삭제 절차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열람과 삭제가 수집보다 어렵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재벌 오너 3, 4세 '입사 3년에 임원'

대기업 총수일가 3~4세들은 입사 3.5년만에 임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신입사원이 대리로 승진하는 데는 4년이 걸렸다.

8일 기업 분석 업체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대주주일가가 있는 30대 그룹 총수의 직계 가운데 승계기업에 입사한 3~4세 자녀 4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44명 가운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제외하고 현재 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32명(남자 27명, 여자 5명)은 평균 28.0세에 입사해 31.5세에 임원으로 승진했다.

남자는 평균 28.5세에 입사해 32.0세에 임원이 됐고 여자는 25.6세에 입사해 서른도 되기 전인 29.7세에 별을 달았다. 임원 승진까지 걸리는 기간은 남자가 평균 3.5년, 여자는 4.1년이었다.

입사와 동시에 임원이 돼 경영에 참여한 3~4세도 9명으로 집계됐다. 재계 3~4세의 3명 가운데 1명이 이런 케이스다.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부사장이 각각 27세와 24세에 신세계와 조선호텔의 이사대우와 상무보로 경영에 참여한 바 있다.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의 장남 조원국 전무,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의 3남 이해창 대림코퍼레이션 부사장, 이수영 OCI 회장의 장남 이우현 사장 등도 바로 임원이 됐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코스피, 이틀만에 1900선 회복 코스피가 1% 넘게 오르면서 1900선을 회복한 8일 오후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0.82포인트(1.11%) 오른 1904.65로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SK텔레콤, 가족고객 혜택 강화

TB끼리 온가족무료 등 유무선 결합상품 대상

SK텔레콤이 9일부터 가족고객 대상으로 유무선 결합혜택을 강화한다.

초고속 인터넷을 신규 결합하는 'TB끼리 온가족무료' 고객은 가족 2회선 결합만 해도 1만2500원을 할인 받고, 이 중 62요금제 이상이 1회선만 있어도 2만원을 할인 받는다. 이는 월 2만원 상당의 초고속 인터넷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할인 혜택이며, 5월 31일까지 가입자는 결합 해지 시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SK텔레콤의 'TB끼리 온가족무료'는 이동전화와 인터넷, 집전화를 함께 쓰면 결합 가족 수에 따라 인터넷, 집전화를 기본 제공 또는 할인해주는 유무선 결합상품이다. 2G, 3G, LTE 등 서비스 및 요금제 종류에 상관없이 결합 가능하다.

SK텔레콤은 가족 고객 대상으로 결합 상품 할인뿐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전보이고 있다. 'T가족 포인트'는 가족형 결합상품에 가입한 2~5인의 가족에게 기기변경이나 단말기 애프터서비스(AS)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매월 최소 3000~2만5000원씩 적립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가족형 결합상품 가입자라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가족 결합상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고객도 2인 이상 휴대전화만 결합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TB끼리 온가족무료'에 가입한 4인 가족의 경우 초고속 인터넷 및 집전화 기본제공뿐 아니라 'T가족 포인트' 혜택까지 2년간 약 106만원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가족 결합 고객 모두에게 연말까지 한도 없이 T멤버십을 사용할 수 있는 '무한멤버십'을 제공한다.

기존 인터넷보다 최대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이용 고객도 유무선 결합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가 인터넷 이용 고객이 'TB끼리 온가족무료'로 2회선 결합 시 1회선이 75요금제 이상이거나 3회선 이상 결합하면 3만원 상당의 기가 인터넷 상품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다.

김영신 SK텔레콤 마케팅전략본부장은 "SK텔레콤 가족 고객은 유무선 결합 상품을 통해 가계통신비를 절약하고 T가족 포인트, 무한멤버십 등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가족고객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illegible]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 인·편집인 [illegible]
사장 편집인 [illegible]
편 집 국 장 [illegible]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91
[illegible]

은행들, '은퇴시장' 선점 경쟁 치열

신한·농협·기업銀, 세미나-신상품-전용창구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은행권의 은퇴 금융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최근 고객의 은퇴 준비를 돕기 위해 노후 설계 세미나와 신상품 출시, 귀농 체험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마땅한 성장 동력이 없던 은행들이 새로운 먹거리로 은퇴시장을 주목한 것이다.

실제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국내 실버마켓 규모는 지난 2010년 33조2000억원에서 오는 2020년이면 125조원으로 10년간 약 4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206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38.2%로 최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등 은퇴금융 시장 규모가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은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은퇴전용 상담창구인 미래설계센터를 전국 325곳으로 확대했다.

미래설계센터는 100세 시대를 대비해 장기적인 미래설계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고객별 금융거래 특성과 세부적 통계를 반영한 은퇴준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255개 영업점에 은퇴전용 상담창구인 미래설계센터가 도입되며 고객은 기존의 70개 미래설계센터와 더불어 전국 325개 영업점에서 은퇴설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해 4월 은퇴브랜드 '신한미래설계'를 선보인 후 은퇴전용 미래설계통장과 6종의 미래설계 은퇴신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0월 은퇴설계 시스템인 'S-미래설계'를 런칭하는 한편 부부 은퇴 교실 등을 운영해 왔다.

은퇴교육 프로그램인 '신한부부은퇴교실'은 내달 7일 백범아트홀에서 '퇴직, 새 삶 그리고 가족 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미래설계센터 확대를 통해 전국 325개 영업점에서 은퇴상담 전문가인 '미래설계 컨설턴트'와 은퇴설계 시스템인 'S-미래설계'를 통해 은퇴설계 뿐만 아니라 상속, 증여 등 심층상담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올 하반기까지 신한은행 전 영업점에 미래설계센터를 확대해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은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년층을 위한 전용창구도 마련됐다.

농협은행은 노년층만을 전담하는 시니어 전용 창구와 콜센터를 은행권 최초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농협은행은 전국 200개 영업점을 노년층과 50대 은퇴 준비자를 위한 집중 지점으로 육성해 노년층의 재테크 상담과 은퇴 설계 등 전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협은행은 NH은퇴연구소를 통해 귀농 체험을 지원하는 한편 노후설계 정보 간행물인 '행복설계'도 매분기 발행하고 있다.

'행복설계'는 부동산과 금융상품 같은 재무적 정보와 함께 귀농귀촌, 가족관계, 여행 등 노후설계와 관련된 정보를 다루며 전 연령층의 노후준비를 돕고 있다.

오두희 퇴직연금부장은 "인생 100세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오래 사는가'가 아닌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가'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장수가 축복이 되려면 '자기발견'과 '자기계발'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은퇴 고객을 위한 상품도 있다. 기업은행은 은퇴 고객을 위한 연기 10년 적금 상품을 내달 중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또 지난해 8월 출범한 IBK평생설계센터에 컨설턴트(평생플래너)를 약 200명 증원해 생애 주기별 은퇴설계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평생설계 역시 30·40대 은퇴 준비 고객과 50대 은퇴 예비고객, 60대 이상 은퇴 고객을 대상으로 각기 다른 은퇴 준비를 제시하며 금융 지원과 생활 지원 솔루션을 구분해 재무적·비재무적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이는 평생 고객을 유지하겠다는 권선주 IBK기업은행장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

앞서 권 행장은 신년사를 통해 "평생고객화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고객이 IBK를 평생 주거래은행으로 거래하도록 해야 한다"며 "고령화와 모바일 트렌드에 따라 앞으로는 'IBK평생설계'와 통합플랫폼 'IBK One뱅크'가 개인금융의 큰 축이 될 것으로 일반상품은 물론 다양한 복합 상품을 개발하고 정교하게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채신화기자 s.welli02@metroseoul.co.kr

주요은행, 임단협 타결 급물살

주요 은행들의 임금단체협상(임단협) 타결이 연초부터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최근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일반직 임금인상률 2%로 임단협을 타결해 다른 은행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7일 사측이 제시한 올해 임금 인상률 2.0%에 합의하면서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해 1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4200여명의 경력 인정은 기존 최대 36개월에서 60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영업직 직원에게는 태블릿 PC도 지급된다. 다만 정년연장에 의한 임금피크 제도 개편과 이익배분제도(P/S) 보완 등 사항은 앞으로 노사가 관련 전담팀(TFT)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 희망퇴직은 하지 않기로 했다.

성낙조 국민은행노조위원장은 "조합원들의 보상 요구를 100% 만족할 수는 없는 수준이지만 소외계층에 대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새해 현장 되찾기 활동과 리딩기업 의미의 재정립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노동조합도 사측이 제시한 임금 인상률 2.0%(일반직 기준)를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앞서 노조는 6.1%의 임금 인상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는 RS(개인고객창구 서비스) 직군의 임금은 4% 오른다. 45세 이상 직원에게 지급되는 건강검진 지원비는 기존 38만원에서 48만원으로 오른다.

그러나 다른 은행들의 임단협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다.

통합을 앞둔 하나·외환은행의 임단협은 외환은행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시기·급여수준·자동승진 여부 등 조건에 대한 노사간 의견차가 커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는 ▲무기계약직 2200여명 전원의 6급 정규직 즉시 전환 ▲기존 6급 정규직의 급여기준 적용 ▲일정기간 경과 후 전원 5급으로 자동승진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진은 ▲무기계약직의 통합 후 1개월 이내에 선별적 6급 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 후 현 급여수준 유지 ▲일정기간 경과 후 별도의 승진심사를 통한 승진기회 부여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나은행 노조는 5.5%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외환은행과의 통합 등 환경 변화에 상응한 직급과 급여체계의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외환은행과의 통합을 마무리한 뒤 하나·외환은행의 노조안을 두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우리은행은 예금보험공사와의 이행약정(MOU)을 달성해야 임금 인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지기자 minji@

미래에셋박현주재단, '글로벌 문화체험단' 상해 탐방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초청해 자란 중국 상해를 방문하고 현지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는 '제13회 글로벌문화체험' 행사를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 제공

박종복 SC은행장 "5년 내 한국 최고 은행 목표"

박종복(59·사진)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 회장 겸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장이 8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본점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박종복 은행장은 1979년 제일은행 행원으로 입행해 35년 동안 영업부문 요직을 두루 거쳐 지난 12월 23일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박 행장은 취임사에서 "은행의 성장을 위해 향 후 2~3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5년 내에 '한국 최고의 국제적 은행'을 실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행장은 이를 위해 ▲고객이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 ▲소매금융과 중소기업·기업금융을 균형 있게 성장시킬 것 ▲한국 현실에 맞는 경영활동을 통해 토착화된 국제적 은행을 만들 것 ▲감성 경영으로 소통에 노력해 'One Bank'를 만들 것 등의 총 4가지를 향후 경영 방침으로 발표했다.

서성학 노조위원장은 축사에서 "한국인이며 내부 출신 은행장을 맞아 직원 모두가 기대가 크다"면서 "진정성을 가진 경영과 고용안정을 통해 노동조합과 함께 은행 살리기와 직원 사기진작에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주요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취임식은 전 지주 회장 겸 은행장인 아제이 칸왈 스탠다드차타드 동북아 총괄 대표 인사말과 박종복 지주 회장 겸 은행장 취임사, 서성학 노조위원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민지기자

기자들만 아는
숨겨진 속 이야기!

특별기자회견
용감한 기자들

매주 **수요일 밤 11시** E채널

신동엽 | 홍석현 | 김태현 | 김정민 | 레이디제인

IFRS4 2단계 도입 대비 자산운용 강화

저금리 기조 유지 등 대내외적 상황 악화…효과 '미지수'

Issue & View 생보사는 지금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생명보험업계가 오는 2018년 도입되는 국제보험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에 대비한 재무건전성 확보와 자산운용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추가 기준 금리 인하 가능성과 자산운용 수익률 저조로 이 같은 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공표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IFRS4 2단계 도입을 위해 오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지급여력(RBC) 필요자본 수준을 강화하는 안이 포함됐다.

IFRS4 2단계는 상품 판매 시 미래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보험가입 시점이 아닌 결산시점의 변동된 위험률과 금리를 반영한다. 즉 현행 상품 판매 시 원가로 책임준비금(부채)을 산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부채를 감당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생보사들은 최근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비롯한 다양한 방책을 내놓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말 투자사업부를 삼성자산운용으로 이관해 주식과 채권 투자부문을 일원화했다. 이번 개편은 200조가 넘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수익성과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 미래에셋생명의 경우 이미 지난해 9월부터 계리사, 회계사 등 8명으로 구성된 전담TF팀을 꾸렸다. 이들은 예외의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보유계약의 수익성 리스크 파악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라이프생명은 지난해 11월 재정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 비율을 높이기 위해 500억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이 회사는 이번 후순위채 발행으로 9월 말 160.4%였던 RBC비율이 200%대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H농협생명은 최근 김희석 전 한화생명 투자전략본부장을 일인지주와 생명의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선임하고 자산운용 부문을, 교보생명은 담당자를 중심으로 회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9월 조직개편을 통해 재정건전성부분을 강화했다. 흥국생명도 조만간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생보사의 재정건전성 강화계획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우선 추가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어 보험사가 받는 보험료보다 지불해야 하는 보험금이 더 많은 역마진 우려가 다시 대두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오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 인하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보험사가 자산운용을 위해 보유한 국공채 등의 금리 인하와 고금리 확정형 저축성보험에서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IFRS4 2단계가 도입되면 저축성보험의 저축보험료가 수입으로 잡히지 않게 돼 매출이 줄어드는 효과도 발생한다.

생명보험협회가 발표한 월간생명보험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25개 생보사의 저축성보험 보유계약액은 539조6953억7400만원으로 전체 보유계약의 24.2%에 달한다. 특히 이 중 삼성·한화생명의 경우 확정형 금리상품 중 역마진 우려가 있는 6% 이상 상품 비중은 각각 30%, 67%에 달한다.

지난달 외국인 주식·채권서 2조 이탈

지난달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주식 1조9000억원을 순매도하고 채권 1000억원을 순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4년 1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직전달 주식 2조원을 순매수했던 외국인은 이처럼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4분기 동안 순매수와 순매도를 거듭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7000억원어치 팔아치우며 최대 순매도국이 됐다.

이어 영국(-6000억원)과 사우디아라비아(-3000억원)가 뒤를 이었다.

최대 순매수국은 일본(2000억원)이었고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각각 1000억원씩 사들였다.

지역별로는 유럽(-1조원)과 미국(-7000억원)이 순매도로 돌아선 가운데 아시아(3000억원)만 순매수 기조를 이어갔다.

12월 말 외국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은 423조원으로 전달보다 15조5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전체 시가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가별 보유규모는 미국이 164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했고 영국 37조5000억원(8.9%), 룩셈부르크 25조7000억원(6.1%) 순이었다.

외국인의 채권 투자는 4개월만에 소폭 순유출세를 기록했다.

12월 외국인의 채권 순매수 규모는 5조원으로 전달 2조3000억원보다 2조7000억원 증가했고 만기상환 규모(5조원)는 3조2000억원 늘어났다.

국가별로는 말레이시아가 8000억원 규모로 이탈하면서 최대 순유출국으로 부상했다.

이어 싱가포르(-3000억원)와 미국(-2000억원) 순이었다.

반면 최대 순투자국은 6000억원 유입된 중국이 두달 연속 자지했고 영국과 쿠웨이트는 각각 2000억원씩 순투자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4000억원)와 미국(-2000억원)이 전달에 이어 순유출세를 이었고 유럽(5000억원)은 순투자 기조를 지속했다.

12월 말 외국인이 보유한 상장채권은 100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6.9% 비중을 점했다.

이는 전달 대비로는 1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8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18.6%를 보유했고 중국 14조7000억원(14.7%), 룩셈부르크 12조원(11.9%) 순이었다.

/김현정기자 hjk@

보험연수원, 부원장에 이득로 손보협 상무

보험연수원은 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임 부원장에 이득로(사진) 손해보험협회 상무를 선임했다.

이 부원장 내정자는 오는 15일 임기가 만료되는 염두석 부원장의 후임으로, 이달 13일 공식 취임한다.

이 내정자는 1957년생으로 전북 익산 남성고, 건국대 수학교육과, 연세대 경제대학원을 졸업했다. 손보협회에서는 의료연수팀장, 자동차보상팀장, 자동차보장사업팀장을 거쳐 자동차보험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김형석기자

생보재단, 왕십리역 광장에 건강기부계단 설치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8일 왕십리역 광장에 건강기부계단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강기부계단은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할 때마다 기부금이 적립되는 착한 계단이다. 이 계단을 통해 적립된 기부금은 혼자서 걷기 어려운 아동들의 보행보조기구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제공

'저 유가-강 달러' 언제까지 지속되나

"적어도 상반기" 전망 다수

연초부터 글로벌 증시가 출렁이면서 저유가-강달러 구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졌다. 적어도 상반기까지 이런 구도가 이어지다가 하반기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천정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상당수 시장 참가자들이 여구동성으로 저유가-강달러 구도를 전망하고 있으나 지난 2013년 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당시를 상기해보면 이처럼 한 방향으로 쏠린 시장의 인식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버냉키 연준 의장이 2013년 6월 전격적인 테이퍼링 시행을 예고하면서 미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신흥국 자금이 대거 이탈하고 통화가치가 급락하는 등 글로벌 투매 현상이 벌어졌다.

그러나 연준은 2013년 말 테이퍼링 시작 후 지난해 10월 이를 종료한 뒤 지금까지도 금리 인상 시점을 놓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당시 금리가 오를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며 "올해 시장이 지배적인 이슈인 저유가-강달러 기조 역시 비슷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글로벌 증시는 유가 추세와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에 따라 연일 급변 중이다.

일각에서는 WTI와 두바이유에 이어 브렌트유까지 최근 모두 50달러 붕괴를 겪은 것은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도 유가 동향을 예의주시한다.

천 연구원은 "WTI 기준으로 국제 유가가 일시적으로 40 달러를 밑돌 수 있으나 이 수준이 바닥권일 것"이라며 "미국의 원유 수출 허용과 이란산 원유 방출 가능성도 있어 저유가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유가 전망은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원유 생산업체의 결정에 좌우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장관이 국제 원유가격 배럴당 20 달러 선도 용인하겠다는 발언을 해 하락 전망에 더 힘이 실린다.

강달러 현상은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완화될 전망이다.

금리 인상 직전까지 강달러 현상이 정점을 찍고서 막상 금리가 올라가면 통화 강세 흐름이 약해질 것이란 시각이다.

선성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연준의 금리 인상 이슈가 있으므로 강달러 압력이 올해 내내 지속되다가 하반기 들어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현정기자 hjkim@

알뜰폰, 점유율 10% 넘어설 듯

단통법·우체국 판매대행 사업자 확대 등 호재

지난해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던 알뜰폰이 올해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45일간 영업정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등의 영향으로 반사이익을 거두며 알뜰폰 가입자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7.9%까지 차지했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올해도 알뜰폰의 성장세가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올해 알뜰폰 가입자가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0%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단통법 영향으로 저가 요금제·단말기를 선호하는 이용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체국알뜰폰 업체가 기존 6곳에서 10곳으로 확대되는 등이 호재로 작용할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2013년 12월 248만명이었던 알뜰폰 가입자수가 지난해 12월 현재 458만명까지 급증했다. 1년새 2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KT의 알뜰폰 자회사인 KTIS,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자회사인 미디어로그까지 시장에 진출하며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들 업체는 기존 2G, 3G 중심의 알뜰폰 시장을 4G(LTE)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동안 알뜰폰은 '싼 요금제, 싼 단말기'만 사용한다는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실제 미디어로그는 현재 7만여 가입자 중 68%가 LTE 가입자일 정도로 알뜰폰 업계에 LTE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KTIS도 LTE 중심의 가입자 유치에 나서면서 전체적인 알뜰폰 시장 트렌드를 변화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이 같은 모습에 힘입어 전체 알뜰폰 사업자의 LTE 가입자도 1월 4.8%에서 지난해 11월 8%까지 증가했다.

한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과거 2G나 3G 중심의 저가 요금 가입자에서 LTE 가입자 확대로 인해 알뜰폰 업계들의 수익 안정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알뜰폰 사업자들이 흑자를 내기 힘든 상황에서 올해 LTE 가입자 중심의 사업 경쟁력 강화는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알뜰폰 업계에 효자로 자리잡은 우체국알뜰폰 사업 역시 올해도 주목할 부분이다. 지난해에는 아이즈비전, 에넥스텔레콤, 유니컴즈, 스페이스네트 등 우체국알뜰폰 사업자가 6곳에 불과했으나 지난 6일부터 큰사람, 스마텔, 온세텔레콤, 위너스텔 등 4곳이 추가됐다.

우체국알뜰폰은 사업자 확대와 함께 청소년 전용 요금제, 무약정 반값요금제 등 판매상품은 18종에서 30종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우체국알뜰폰 가입자들도 가입 업체뿐 아니라 단말기, 요금제까지 선택폭이 넓어졌다는 분석이다.

/이재영기자 ry0403@metroseoul.co.kr

스키장 '기가 슬로프' 이벤트 KT는 올레 기가 인터넷 가입자 10만 돌파를 기념해 오는 10일부터 강원도 평창 휘닉스파크 스키장에서 KT 고객 전용 슬로프와 리프트 탑승 라인 등을 제공하는 '기가(GIGA) 슬로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KT고객들이 휘닉스파크에 마련된 KT고객 전용 리프트 탑승라인과 슬로프에서 스키를 즐기고 있다. /KT 제공

현대 엑센트, 국산차 첫 7단 DCT

빠른 반응 속도·뛰어난 연비가 장점

엑센트 디젤 모델이 더욱 강력한 심장을 얻었다.

현대자동차는 신규 디젤 엔진을 적용하고, 국산차 최초로 7단 더블 클러치 트랜스미션을 탑재해 연비와 동력성능을 혁신적으로 높인 2015년형 엑센트 디젤을 8일부터 본격 시판한다.

더블 클러치 트랜스미션(DCT, Double Clutch Transmission)은 우수한 연비, 스포티한 주행감 경제성 등 수동변속기의 장점과 운전 편의성 등 자동변속기의 장점을 동시에 실현한 신개념 변속기다.

더블 클러치 트랜스미션은 홀수 기어를 담당하는 클러치와 짝수 기어를 담당하는 클러치 등 총 2개의 클러치를 적용, 하나의 클러치가 단수를 바꾸면 다른 클러치가 곧바로 다음 단에 기어를 넣음으로써 변속 때 소음이 적고 빠른 변속이 가능하며, 변속 충격 또한 적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DCT는 기존 현대차 중에 벨로스터에만 적용해왔는데 벨로스터에 적용된 DCT는 6단 변속기이고, 엑센트에는 7단 변속기가 장착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번에 국산차 최초로 2015년형 엑센트 디젤에 적용된 7단 더블 클러치 트랜스미션은 현대차가 독자 기술을 통해 개발한 변속기로, 편리한 변속 반응속도와 탁월한 연비 개선 효과 등이 특징이다.

2015년형 엑센트 디젤은 7단 더블 클러치 트랜스미션 적용을 통해 변속 반응속도를 대폭 향상시킨 것뿐만 아니라 국산 승용 모델 중 최고연비인 18.3km/ℓ(자동변속기 기준, DCT 포함)를 달성, 동급 최고 수준의 경제성을 확보했다.

또 신규 1.6 VGT 엔진을 적용해 더욱 엄격해진 디젤차 배기가스 규제단계인 유로6(EURO 6)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한편, 기존 모델보다 각각 6.3%, 10.9%가 향상된 최고출력 136마력, 최대토크 30.6kg.m의 동력성능을 갖췄다.

/양성운기자 ysw@

대우조선해양 세계 최대 상선 건조 기록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이 가지고 있던 세계 최대 상선 건조 기록을 경신했다.

대우조선해양은 1만 9224TEU급 컨테이너선 시리즈 가운데 첫 호선인 'MSC 오스카(MSC OSCAR)'의 명명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종전 기록은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11월 건조한 1만9000TEU급 컨테이너선 'CSCL 글로브' 호였다.

대우조선해양이 이번에 건조한 'MSC 오스카'는 2013년 7월 중국 교통은행이 스위스 해운선사인 MSC 사가 발주한 3척의 컨테이너선 가운데 하나다. 1만9224개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는 이 선박은 길이 395.4m, 폭 59m, 높이 30.3m로 축구장 4개를 합친 크기다. 적재한 컨테이너 박스를 일렬로 놓을 경우 거제에서 용산까지의 거리와 맞먹는 115km에 이른다.

특히 연료유 사용 시 나오는 침전물이나 누수 오일에서 2%의 오일량을 추출해 재활용하는 '퓨어 드라이(Pure Dry)' 장비를 장착해 연료 소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선박에서 발생한 폐 연료유를 재사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다.

오스카 호는 아시아~북유럽 항로에 투입돼 부산~칭다오~닝보~상하이~로테르담~앤트워프 등지를 운항할 예정이다.

/김연준기자 mk.m@

삼성전자 갤럭시A 시리즈 출시 임박

'스토리그래퍼' 모집

삼성전자의 저가형 스마트폰 갤럭시A 시리즈의 국내 출시가 임박했다.

삼성전자는 오는 20일까지 젊은 감성으로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만의 새로운 문화를 전파할 '갤럭시A 스토리그래퍼'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갤럭시 A 스토리그래퍼는 조슬림 메탈 디자인에 다양한 셀프카메라 기능으로 젊은 소비자들을 겨냥한 신제품 '갤럭시A 시리즈' 출시에 앞서 갤럭시만의 특별한 문화를 전파하게 될 체험단이다.

삼성전자는 스토리그래퍼와 함께 갤럭시A 의 다양한 카메라 기능을 활용해 젊은 세대의 흥미와 공감을 불러 일으킬 신선한 스토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스토리그래퍼들은 갤럭시A를 통해 자신만의 스토리를 담아내는 일상용 셀프카메라와 사용기를 공유하는 개별활동, 이색적인 스토리 미션 팀활동에 참여한다. 이때 삼성전자는 팀활동을 웹디쥬 형식으로 제작해 온라인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갤럭시 A 스토리그래퍼는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1단계 서류 전형과 2단계 면접 전형을 통해 오는 23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한다. /양성운기자 ysw@

삼성전자, 중저가 스마트폰 라인업 강화

A시리즈 2월 중순 출시 예상

삼성전자가 연초부터 중저가 스마트폰 라인업을 강화하고 나섰다. 삼성전자는 뛰어난 품질의 프리미엄 제품을 바탕으로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에 올랐으나 최근 저가 제품으로 무장한 중국 제조사들의 공세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저가폰 비중은 올해 50%, 2015년에는 52~5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 인도 등 신흥국 시장에서는 중저가 스마트폰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가성비가 높은 제품을 선보이고 젊은 소비자들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일 삼성전자는 인도 뭄바이에서 컴팩트한 디자인의 '갤럭시 E7'과 '갤럭시 E5', 초슬림 풀메탈 스마트폰 '갤럭시 A5'와 '갤럭시 A3'를 공개했다. 이 제품들은 모두 배터리가 일체형으로 돼 있는 유니바디 스마트폰으로 가성비를 높였다.

또 셀피(Selfie)를 즐기는 젊은 소비자를 위해 다양한 특화 기능을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500만 화소 전면 카메라를 활용한 선명한 화질의 셀피를 손쉽게 촬영할 수 있으며 120도의 화각으로 촬영한 것과 같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와이드 셀피', 사용자의 손바닥을 감지해 자동으로 촬영해주는 '팜 셀피' 등의 셀피 기능이 눈길을 끈다.

왼쪽부터 삼성전자 '갤럭시 E7' '갤럭시 A5' '갤럭시 그랜드 맥스' /삼성전자 제공

A시리즈의 경우 연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출시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중국에서 출시된 A5와 A3는 각각 6.7㎜, 6.9㎜의 얇은 바디에 메탈 소재를 채택해 디자인 경쟁력이 높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A시리즈의 정확한 출시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달 말 '갤럭시A 스토리그래퍼' 모집이 종료되는 대로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며 "E시리즈의 한국·중국 출시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9일 '갤럭시 그랜드 맥스'를 출시한다. 이 제품은 7.9㎜ 두께의 컬링 패턴을 적용한 독특한 후면 커버 디자인과 함께 앞서 인도에서 선보인 제품들과 동일한 셀피 기능 등을 탑재했다. 이 제품은 국내 자급제 전용폰으로 출시돼 사용자가 원하는 국내 이동통신사업자나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로 구매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출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혜진기자 hjang0404@metroseoul.co.kr

원청기업 책임 커진다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하도급 거래에서 이른바 원청기업의 책임이 커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방향으로 10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한 업종은 전자, 전기, 가구-건설자재, 자기상표부착제품, 건설,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경비 등 9개고 제정한 업종은 해양플랜트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제품(목적물)이 없어지거나 훼손됐을 때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시했다.

더불어 원사업자가 공급하는 원재료의 성격상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 원사업자가 책임을 지게 됐다.

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체결한 약정 내용이 하도급법·공정거래법 등과 상충하면 그 약정은 효력이 없음을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체결한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객관적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변경이 가능하다.

을인 수급사업자가 어쩔 수 없이 계약 변경에 동의하는 현실을 감안한 규정이다.

/박상훈기자 zen@

'내 피부 나이는?'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5 메디뷰코리아'에서 참가 업체 관계자가 피부 나이측정기를 이용해 방문객의 피부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 강하고 안전해진 '더 뉴 모닝' 기아자동차는 안전사양을 대거 추가하고 내·외장 디자인을 보강해 상품성을 강화한 '더 뉴 모닝'을 8일 본격 시판한다고 밝혔다. '더 뉴 모닝'은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차체자세제어시스템, 경사로 밀림방지장치, 후륜 디스크 브레이크 등 안전사양을 기본적용했다. /연합뉴스

창의·글로벌·지역인재로 '취업절벽' 넘자

'취업절벽'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

8일 취업포털 커리어는 올 취업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키워드로 창의·글로벌·지역인재를 제시했다.

◆**창의 인재(Creative talented)**=요즘 기업들은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인재보다는 특정 직무 관련 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원한다. 삼성그룹이 직무적합성 평가를 도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학점, 어학점수와 같은 서류상의 스펙이 아닌 전공·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쌓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사 상식을 전공과 지원 직무에 적절히 융합시키는 스토리텔링 능력을 키우는 것도 바람직하다.

◆**글로벌 인재(Global talented)**=글로벌 경영 마인드와 역량을 가진 인재를 찾는 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어학 실력만 뛰어나서는 취업하기 힘들다. 글로벌 인재에게도 '소통'과 '협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기 위해 세계 각국의 관습이나 문화적인 차이를 직·간접경험하고 습득하려는 능동적인 모습은 필수다.

◆**지역 인재(Local talented)**=지역인재 채용에 적극 나서는 공공기관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초에 울산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석유공사는 울산에서만 200여명의 직원을 채용했다. 나주에 '푸드체인'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전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신입사원의 30% 이상을 지역인재 할당량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움직임은 2015년도 채용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정구학기자 kmlee@

겨울을 녹이는
한잔의
부드러움
처음처럼
부드러운 소주